

“미래기술, 생존의 문제” 이재용 3일째 현장경영 13



카카오엔터 출범 1년 만에 ‘1兆 기업’ 14

사명·로고도 바꾼 기아 전기차·모빌리티 승부

30년 만에 기업명서 ‘車’ 사라져
303대 드론으로 새 로고 공개
‘균형·리듬·상승’ 세 의미 담아
슬로건도 ‘감동 담은 움직임’으로



기아자동차가 브랜드 로고와 회사명을 바꾸고 전기차 회사로 본격 전환한다.

6일 기아차는 신규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 등을 공개하는 ‘로고 언베일링 행사’를 열었다. 회사 공식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공개된 행사는 총 303대의 드론이 새로운 로고를 그리며 진행됐다. ▶관련기사 13면
새 로고와 슬로건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전략 ‘Plan S(플랜 에스)’의 일환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2대 미래 사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담았다.

2027년까지 소형차와 크로스오버, SUV 등 총 7종의 전용 전기차를 출시한다. 사업 재편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개발을 추진하면, 기아차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에 집중한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도심 이착륙장인 ‘허브(HUB)’다.

신규 로고는 기아차의 이 같은 방향성을 담았다. 하나의 획으로 이어진 새 로고에는 △균형과 △리듬 △상승 세 가지 의미

도 담겼다.

‘균형’은 기존 사업영역에서의 고객 만족은 물론, 미래 지향적 제품을 제시하겠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리듬’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겠다는 기아차의 의지를 표현했다. ‘상승’은 고객 관점의 새로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기아의 열정을 상징한다.

브랜드 지향점을 담은 슬로건 역시 기존 ‘파워 투 서프라이즈’(The Power to Surprise)에서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Movement that inspires)로 바꿨다.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는 만큼 ‘감동을 담은 움직임’을 의미한다.

회사명 역시 기존의 기아자동차(Kia Motors)에서 자동차(Motors)를 뺀 기아(KIA)로 바꾼다. 1990년 기아산업에서 기아차로 사명을 교체한 지 30년 만이다. 이날 로고와 슬로건 등을 공개한 기아차는 15일 더욱 자세한 브랜드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차 사장은 “새롭게 선보인 로고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면서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들의 삶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기아차의 새로운 모습과 미래를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코스피가 6일 사상 처음으로 3000 고지를 밟았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장을 개장해 장중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을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여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65년 만에 ‘3000 고지’ 밟았다

장중 3027.16 찍으며 사상 최고
증가는 22.36P 떨어져 2968.21
증권가 “올해 3300까지 상승” 전망

코스피가 65년 만에 장중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다. 저금리에 기대어 빗투에 나선 ‘동학개미’가 지수를 지켜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주가만 거꾸로 가는 ‘디커플링(과리)’ 국면이 길어지면서 “피크(정점)를 찍고 군두박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2.36포인트(0.75%) 내린 2968.21에 마감했다. 7거래일간 지속된 상승 행진과 6거래일 연속된 사상 최고지 경신 행진을 멈췄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3027.16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가 장중 3000선을 넘어선 것은 증시 역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증가 기준 사상 첫 3000선 고지 달성에는 실패했다.

그나마 낙폭을 줄인 이들은 ‘동학개미’였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은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막았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3000을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보단 대세 상승 기대감이 앞선 모습이다.

증권업계는 연말까지 주가가 3200~33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근거로 △기업실적의 순환적 회복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장기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기류 강화 △외국

인과 개인의 수급 선순환 구도 정착 등을 들었다.

코스피 목표가를 3200으로 제시한 JP모건은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특히 높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장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3000선을 넘나들겠지만, 이후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증시의 거품을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교수는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실물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면서 “외부 충격으로 지수가 조정받으면 20%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우람 기자 hura@·김나은 기자 better68@
손영지 기자 eomil@·유혜림 기자 wiseforest@

누더기 된 ‘중대재해법’ 내일 국회 통과할 듯

처벌 대상 줄이고 수위 낮춰
노동계·경영계 모두 불만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쟁점 조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다만 처벌 대상을 줄이고 수위도 낮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5면

여야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갔다. 공중이용시설 적용 범위와 유예기간 등이 주요 논쟁거리였다. 이날 합의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래방이나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5일 회의에선 처벌수위를 논의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로 하며 정부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하도록 허용하는 임의적 병과를 가능하게 했다. 법안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법안이 기존안보다 후퇴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말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릴 수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하한형이 삭제돼 법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낮춰 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김난도 “사람도 기업도 살길은 피보팅”

2021 신년기획 특별 인터뷰
혁신 거듭 ‘축적의 힘’으로 이뤄져야
‘V노믹스’ 시대 주목할 키워드로 꼽아

트렌드 전문가인 김난도<사진> 서울대 교수가 워드 코로나 시대 뉴노멀로 “사람도 기업도 피보팅해야 살아남는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6일 이투데이의 신년기획 시리즈 ‘뉴노멀 워드 코로나’ 관련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게 될 경제 상황은



의미하는 브이노믹스(V-nomics) 시대에는 사람도 기업도 ‘피보팅’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피보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mm씩 작은 혁신의 힘이 축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7면

매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해온 김교수는 2021년 키워드로 꼽은 10개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용어로 ‘피보팅’을 꼽았다. 사전적 의미로 ‘물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라는 뜻을 지닌 피봇(pivot)은 최근 기업의 기민한 변화와 혁신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부상했다. 김 교수는 “피보팅이

‘핵심역량’과 ‘고객’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되, 혁신을 거듭한 ‘축적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피보팅’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보팅은 브이노믹스 시대에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시대에 ‘휴먼 피보팅’은 ‘기업 피보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개인이 이사회에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사회는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을 조언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LG, 美 ‘배터리 영토’ 더 넓혔다… SK도 자금 수혈

LG에너지-GM 합작 ‘얼티엄 셀즈’ 오하이오주 59만㎡ 부지 추가 매입 年 240만대 전기차에 공급 가능
SK이노, 조지아주 제2공장 건설 그린본드 통해 투자금 1兆 조달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 공장 가상도(왼쪽).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제공 GM SNS·SK이노베이션

LG와 SK가 미국 배터리 생산 기지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Ultium Cells)가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짓는 배터리 공장 주위에 추가 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오하이오주 트럼블 카운티(Trumbul County) 회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얼티엄 셀즈는 지난해 11월 로즈타운모터스(LORDSTOWNMOTORS)로부터 총 59만㎡ 규모의 부지를 사들였다. 현재 짓고 있는 공장도 비슷한 크기다.

구체적으로는 공장 건설 용지 남쪽에 있는 사각형 모양의 부지 19㎡와 남서쪽에

있는 ‘L’ 자 모양의 40만㎡ 규모 부지 등 2곳이다. 이 중 19㎡ 크기의 부지는 2019년 GM이 로즈타운 모터스에 팔았던 땅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지 매입이 배터리 생산 규모 확장을 위한 선제적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순히 규모로 계산해 이 부지에 연산 30GWh(기가와트시) 수준의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얼티엄 셀즈의 생산 능력은 총 60GWh까지 늘어날 수 있다.

1GWh는 매년 순수 전기차 4만 대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전극 용량이다. 따라

서 60GWh 생산능력이면 연간 240만대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강화하면서 전기차와 함께 중대형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켓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1600억 달러(약 174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같은 시점 1490억 달러로 전망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규모다.

앞서 2019년 12월 LG화학은 GM은 50

대 50 지분으로 각각 1조 원을 출자해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계적으로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30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해 4월 착공 이후 현재 패드 등 철골 구조물들은 대체로 올라간 상태다. 2022~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얼티엄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43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다. 대형 파우치 형태의 셀을 배터리 팩 안에 가로나 세로로 배치할 수 있는 구조

가 특징이다.

GM은 2025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을 전기차에 투자할 계획이다. GMC 허머 EV 픽업, 캐딜락 라이크 등 전기차에 얼티엄 셀즈 배터리를 탑재할 전망이다. 얼티엄 셀즈 공장이 양산 능력을 갖추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에 있는 홀랜드 공장을 비롯해 총 2개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게 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제2공장 건설 투자금으로 1조900억 원(약 9억 8600만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금융기관과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SK이노베이션이 채무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린본드 계약은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본드로 확보한 자금이 투입되는 미국 배터리 제2공장은 지난해 착공했으며 11.7GWh(기가와트시) 규모로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비는 총 15억 달러(약 1조8000억 원)로 추산된다. 김병기 기자 kimstar1215@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9부 능선 넘었다

국민연금 반대 속 ‘발행주식 총수 확대’ 정관 개정안 주총 통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인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오전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 주에서 7억 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주총에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의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다.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 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항공 지분은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3%

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분이 8.11%다. 그 외 스위스크레딧 3.75%, 우리사주 6.39% 등이다.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를 표명했으나 대한항공 지분 구조의 50%를 차지하는 기타 개인 및 기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관변경안이 통과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를 내게 됐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 예정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기업결합신고 완료 시점에 예정된 아시아나항공 3차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손조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한진칼은 해당 유상증자에 약 7300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한진칼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5000억 원 규모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 5000억 원) 및 영구채(3000억 원) 등에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한 실사를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면 실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실사로 조만간 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3월 중순까지 통

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MI(인수 후 통합)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순까지 국내의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대한항공 내에서도 팀을 갖춰 준비하고 있다.

인수 절차는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적절한 시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3곳도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이주혜 기자 winjh@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수산물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POS-mall

수급조정위원회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혁신

보다 나은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0개월새 ‘1400→3000’… 장기랠리 속 거품론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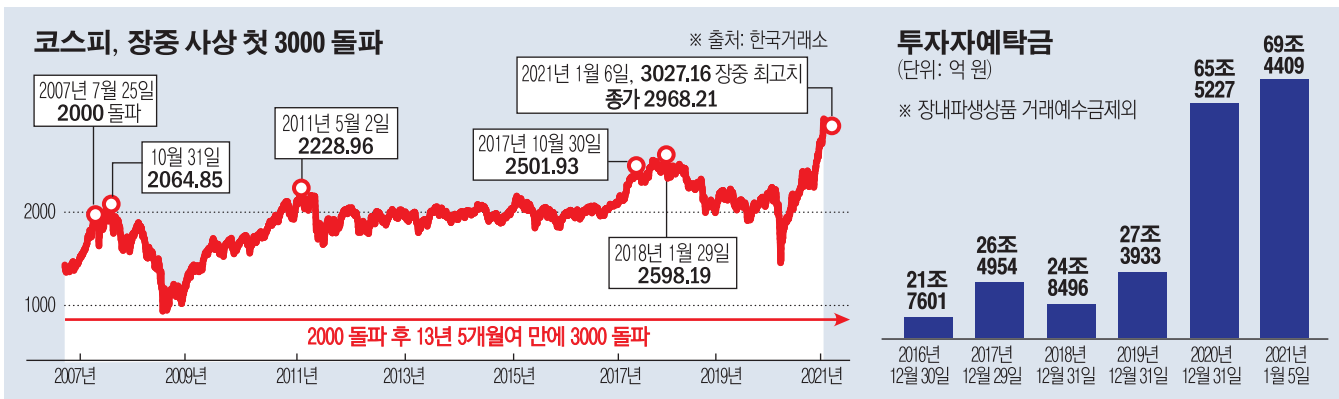
개인 2兆 폭풍매수…장중 최고치
기관·외인 매물폭탄에 하락 반전
“올해 더 오른다” 증시 낙관론에
“실물경제와 괴리” 우려감 혼재

“아- 코스피 3000 문턱에서 무너지다나…”
6일 코스피가 ‘코로나19 위기’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 3000선을 뚫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오전 장만 해도 낙관론자들은 목에 힘을 주며 연신 싱글벙글했다. 하지만 2조 원 넘게 폭풍 매수한 동학개미가 지수를 지켜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후 들어 기관(1조374억 원)과 외국인(7031억 원), 금융투자(4723억 원) 3인방이 2조 5000억 원 넘게 매물 폭탄을 던지자 코스피는 2968.21까지 후퇴했다.

‘빛투(빛내서 주식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만든 모래성의 단면을 보였겠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파티에 대한 경계와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엇갈린다.

◇‘동학개미’가 쏟아낸 3000=코스피는 6일 오전 전 거래일 대비 2.77포인트(0.09%) 오른 2993.34에 개장한 직후 가볍게 3000선 문턱을 넘어섰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쏟아내는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이 받아낸 성과였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여 만이다.

오전 한때 1%대 상승하며 3027.16까지 오르는 장면도 있었으나 이내 상승 폭은 축소됐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3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첫 3000선 고지 달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어제 기록했던 신 기록(2990.57%)을 밀도는 2968.21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이 2조 원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각각 1조3755억 원과 6690억 원을 순매도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로 하락 반전한 지수를 되돌리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3000 돌파의 원동력”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가라든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과거 급격한 하락 이후 주가 반등이 있었다는 부분을 개인들이 학

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9.7%인 약 59조 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21.6%(약 24조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 폭으로 뛰었다. 금융권 가계 신용대출의 적지 않은 부분이 주식 투자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금융시장은 흔들림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올해 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 부문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 상승, 경계 목소리도=세계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그늘에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그 충격의 강도가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국내만 보면 지난해 3월엔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봤었지만 8월 재확산 땀 ‘K방역’ 덕분에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또 다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평균 3.2%로 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한국, 중국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주고 있다”면서 “예상보다 강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회복이 전개, 경제활동 재개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2곳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컨센서스)는 128조4065억 원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88조484억 원을 45.8% 웃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예상 자기자본이익률(ROE) 추정치는 8.39%로 2010년(12.6%) 수준을 쫓고 있다. 지난해 ROE 추정치(5.14%)의 2배가량이다.

코로나19 백신 보급 소식도 낙관론에 힘을 보탠다. 한국은행은 백신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중 ‘집단 면역’ 상태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 세계 경제도 활기를 띌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1990년대 후반 ‘닷컴 거품’을 연상시키는 수준으로 시장이 과열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의 이익 대비 주가 비율(12개월 선행 PER)은 14배로 올라서며 부담을 주고 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국내 총생산(GDP) 규모를 훌쩍 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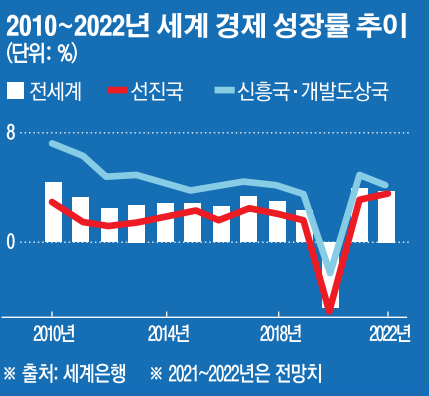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히 오르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자산시장에 버블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 조짐에 금리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고, 미국 뉴스를 필두로 양적완화를 축소한다면 그때 버블이 터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이인아 기자 ljh@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워싱턴D.C.에서 열린 WB-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세계은행(WB) 추산 지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지역	2020년	2021년
전세계	-4.3	4
선진국	-5.4	3.3
신흥국·개발도상국	-3.5	5
동아시아·태평양	0.9	7.4
유럽·중앙아시아	-2.9	3.3
중남미	-6.9	3.7
중동·북아프리카	-5	2.1
남아시아	-6.7	3.3
남아프리카	-3.7	2.7



WB “코로나 통제 실패면 올 성장률 1%대”

세계은행(WB)이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로 잡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현지시간) WB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4.3%로 추정된다. 2차 세계대전 후 -9.8%의 성장률을 나타낸 1945년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 전망한 -5.2%보다 상당히 조정됐다.

WB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6월 예측치보다 0.2%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봉쇄가 심화하며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가 이어진 영향이다. 내년 성장률은 3.8%로 예상했다.

WB는 “세계 경제가 영구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백신 공급 속도가 더디면 올해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WB는 향후 10년간 경기

세계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작년 -4.3%…2차대전 후 최악
올해 4%… 백신보급 속도 관건
“부채관리·경영환경 개선” 요구

침체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을 우려한 것이다. WB는 지난해 6월 2020~2029년 세계 잠재 성장률을 2.1%로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1.9%로 낮췄다.

아이한 코세 WB 경제 전망 담당 국장은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실질적인 개혁이 없다면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잃어버린 10년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접종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부채에 의존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완전한 회복에 접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공중보건과 부채

관리, 경제 구조 개혁 등 엄청난 도전이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WB는 선진국 경제가 지난해 -5.4% 역성장했지만, 올해는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EMDE)은 작년 -2.5%에서 올해 5.0%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WB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회복세가 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팬데믹이 끝나고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지역 내 경제 활동은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WB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점차 높아지는 국가 부채와 개인 채무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고 지정학적 긴장까지 남아 있어 올해 지역 경제의 75%가 침체 위기다. WB는 이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했다.

최혜림 기자 rog@

2021년 증시 예상 시나리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Best	- 코로나19 백신 일반인 접종 -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시장예상을 넘어서는 경기부양책		- 건조한 글로벌 경기 정상화 - 미 연준의 양적완화 유지 시그널	
Base	- 국내외 기업 실적 개선 충족		- 코로나19 백신 일반인 접종 확산 - 완만한 글로벌 경기 정상화	
Worst	-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의 실적 기대치 미달		-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재발 확산 -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그널	

“넘치는 실탄으로 ‘삼천고지’ 터치 韓 실물경제·美 통화정책은 복병”

시나리오별 코스피 전망

코스피지수가 다시 3000을 찍을 수 있을까. 지나친 낙관은 금물.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안착하기에는 곳곳에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6일 장중 3000을 찍은 것은 개선된 투자심리로 인한 유동성의 힘이 지, 대외 경제의 힘은 아니다.

월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 투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속적인 자산 매입으로 시장에는 7조 달러 이상의 돈이 풀려 있다. 시중에 돈이 넘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가 백신 보급으로 회복할 경우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다. 김승한 유화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한 바 있어 기준금리의 변화는 없더라도 유동성 공급조절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하반기 중 실질적 유동성 유입 둔화 또는 이와 관련한 시그널 제공은 주요국 증시에 대한 밸류 멀티플 하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반대 상황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입어 물가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이 올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환율의 하락은 수입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 경기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은행들이 예상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3.2%다.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인 5.2%를 밑돈다.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데 주가만 오르는 ‘펀더멘털(실물경제)과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증시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발을 빼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에 좀처럼 자금을 넣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신흥국’ 카테고리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의 PER가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점, 저금리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급증한 점 등이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기업부채는 1332조 2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1%에 달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기조는 지난해도 그랬듯 올해에도 투자자금을 증시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거주 주택 이외의 투자 목적 부동산 매수가 줄어들며 이러한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eoml@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산 코로나 치료제, 1분기에 최대 4종 나온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이 임박했다. 가장 속도가 빠른 항체치료제를 포함해 올해 1분기에만 최대 4종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 조건부 허가 가시권에 들어온 곳은 셀트리온, GC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다. 조건부 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경우 임상 3상 수행을 조건으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셀트리온 치료제, 이달 희소식 기대 = 셀트리온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중화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 (성분명 레그단비맵)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 항체 유전자를 선별·채취한 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와 재조합해 개발한 치료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빠른 허가승인을 위해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GO신속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렉키로나주의 심사 기간은 휴일을 포함해 최대 40일 이내로 단축된다.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검토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심사 기간을 더욱 당겨 1월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

조건부 허가 임박

정부, 셀트리온 이달 승인 공언

‘경증’ 환자용 대량생산 가능

녹십자·대웅제약·종근당도 예정

신풍제약·동화약품 등 임상2상

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국산 치료제의 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렉키로나주는 90분간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다.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상을 거쳐 중증 환자의 치료 대안은 아니다. 남은 임상 3상 역시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건부 허가 신청 최대 3곳 추가 가능 = 이달 중 최대 3곳의 국내 제약사가 식약처에 코로나19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GC녹십자와 대웅제약, 종근당이 임상 2상을 마치고 데이터를 분석 중으로, 2월 중순까지만 신청해도 1분기 내 허가가 가능하다.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는 중증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5일 기준 28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건의 완치 사례를 확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임상 2상의 데이터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연초에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국내 주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사
회사	약물	대상 환자	임상 단계	허가 일정	구분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경증·중등증	3상(예방)	1월 조건부 허가 예정	항체치료제	
GC녹십자	GC5131A	중증	2상 완료	연초 조건부 허가 신청	혈장치료제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경증·중등증	3상(중증)	1월 조건부 허가 신청	혈장염치료제	
	DWRX2003	경증·중등증	2상 신청	상반기 2상 완료	구충제	
종근당	나파벨탄	중등증·중증	2상 완료	1월 조건부 허가 신청	항응고제	
신풍제약	피라맥스	경증·중등증	2상	4월 2상 완료	말라리아치료제	

말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가진 항체를 분획해 만든다. 해외에서는 임상 1, 2상을 모두 면제받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이다. 다만 완치자의 혈액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대량생산은 어려움이 있다.

GC5131A는 국내 환자들에게 전면 무상 공급된다. GC녹십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의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으며,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도 두지 않았다.

◇전통 제약사, ‘약물 재창출’ 방식 개발 속도 = 기존에 개발된 약물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확인한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1월 중 조건부 허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 및 위 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는 ‘호이스타정’ (성분명 카모스타트 메실레이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앞서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1월 사용을 목표로 호이스타정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약은 경구용이기 때

문에 주사제보다 투약이 편리하다.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 외에도 구충제 성분 ‘니클로사마이드’ (DWRX2003)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 중인 니클로사마이드는 동물모델에서 바이러스 제거·사이토카인 폭풍 저해·호흡곤란 개선 등을 확인했다. 상반기 중 임상 2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 (성분명 나파모스타트)의 러시아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나파벨탄은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3상도 병행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현재 임상 2상의 결과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1월 중·후반께 식약처와 조건부 허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만큼 치료제 중요” = 이 밖에 신풍제약, 동화약품, 엔지켐생명과학, 크리스탈지노믹스, 부광약품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임상의 빠른 진전을 위해서는 환자 모집이 관건이다.

신풍제약은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의 임상 2상을 올해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 모집이 조금 더디더라도 2상 완료 시점을 4월로 연기했다”면서 “상반기 중 조건부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집단 감염)이 해를 넘기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확보의 가치도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사망자는 1000명, 전 세계 사망자는 18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항체치료제를 각각 긴급사용 승인했지만, 의료현장에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에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상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이미 10만 명 분량의 생산을 마쳤고, 약물 재창출 방식은 시판 의약품이란 점에서 공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압타바이오 ‘코로나 치료 후보물질’ 美 FDA 임상2상 시험계획서 제출

유럽 임상1상서 안전성 확인
“중증 환자 표적 치료법 기대”

항암치료제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 개발업체 압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APX-115’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2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APX-115’는 당뇨합병증 치료를 위한 회사의 ‘녹스(NOX) 저해제 발굴 플랫폼’에 기반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현재 당뇨병성신증을 적응증으로 유럽 임상2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기전은 다수의 해외 연구 논문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고, 압타바이오는 지난해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 APX-115가 해당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를 지속해왔다.

APX-115는 유럽 임상1상 사전 완료를 통해 안전성 및 부작용 이슈가 없음을 확인해 코로나19 치료제로 빠른 임상2상 진입이 가능했다.

압타바이오의 ‘APX-115’는 엔도솜을 타깃으로 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엔도솜 내 효소 ‘NOX2’를 저해하고 활성화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를 억제해, 엔도솜을 통한 바이러스 이동을 차단한다. 바이러스 변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만큼 최근 빠르게 전파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이번 미국 FDA에 제출한 임상2상 시험계획이 승인되면 미국 내 12개 병원에서 8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착수한다.

박미선 기자 only@

특히, 여타 다른 긴급사용승인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가 진단된 지 얼마 안 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APX-115’는 진단 후 14일 이내 환자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환자까지 시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증상 외에 염증 및 섬유화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또 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주사제가 아닌 캡슐 형태인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돼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약 편의성 또한 증대할 계획이다.

최근 학술지 ‘Frontiers in Cellular and Infection Microbiology’에 게재된 미국 시카고 로욜라대학(Loyola University of Chicago)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에는 엔도솜에서 작용하는 NOX가 필수적이며, NOX2로 유도된 활성화산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NOX2가 중요한 바이오마커인 것으로 밝혀졌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NOX 조절이 코로나19 환자 임상치료에서 핵심이 될 것이며, 중증 질환 환자에게도 새로운 표적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는 세계적인 임상시험 수탁 기관인 코방스(COVANCE)와 CRO 계약을 체결한 만큼 그들의 글로벌 임상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미국 FDA 임상2상 시험에 속도를 내고,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검사수탁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검체분리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헬스장 등 ‘영업제한 기준’ 손질한다

정 총리 ‘핀셋 방역’ 보완 지시

일부 시설 위험도 평가 미흡

종교시설 비대면 효과도 의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 보완을 지시했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핀셋 방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유사시설인 헬스장(집합금지)과 태권도장(집합제한)의 방역조치 차등을 사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방역기준 조정은 중점·일반관리시설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PC방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중대본이 PC방을 고위험시설(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자 전국 PC방 업주들이 반발했고, 결국 중대본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PC방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일

부 지역에선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와 술집에 대한 집합제한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방역상 더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기준을 유지했다. 이런 맥락에서 PC방이나 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방역기준을 조정한다는 건, 형평성 논란과 별개로 일부 시설의 위험도가 애초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우리 부가 담당하는 시설들에 대해 중대본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우려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전달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그 시설들이 고위험시설이 됐다”고 말했다. 학원 논란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동시 교습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에 따른 밀집도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대형 학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방역조치 자체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의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정오)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의 종교시설 두 곳에서 각각 27명, 17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123명으로 29명(교인 21명) 늘었으며, 강원 원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교인 확진자 2명이 추가(총 40명)됐다.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 확진자는 118명으로 18명 늘었다.

특히 영남권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향후 또 다른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경북 상주시의 인터콥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와 관련성이 확인됐는데, 확진자들의 동선이 복잡하고 접촉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열방센터에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명단에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고용 타격, 산업 중추 30대에 집중됐다”

30대 고용보험 가입 14개월째 줄어... 전 연령층 중 감소폭 최대
제조업·도소매업 등 악화도 원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급선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우리나라 주력 일꾼인 30대에 집중되고 있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의 고용 악화 지속과 30대 인구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3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36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 명(-1.5%)

줄었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0.7%), 40대(1.4%), 50대(4.4%), 60세 이상(14.8%)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과는 대조된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작년 10월(-0.1%)을 시작으로 작년 11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전체 연령 가운데 감소세가 가장 긴 것이다.

이처럼 3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 등의 고용 사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우 30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기준) 비중이 전체 연령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작년 11월 30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96만8000명) 수가 전년 대비 3만7100명 줄었는데 전체 연령 중 감소폭이 가장 크다.

고용부 관계자는 “30대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에 주로 많이 포진해 있어 제조업 경기 부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20대와 달리 30대는 안정된 일자리를 주로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공공일자리에 30대보단 20대가 몰리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고, 이 역시 30대 고용보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자 증감에서도 드러

난다. 작년 11월 30대 실업자(20만6000명)는 전년보다 3만9000명 늘었는데 이는 전체 연령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다. 그만큼 임시일용직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는 30대 구직자가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고용부는 30대 인구 감소가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작년 11월 30대 인구 수는 70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3000명 줄었다. 이러한 감소폭은 15~19세(-16만7000명) 다음으로 가장 큰 것이다. 20대(-3000명), 40대(-6만4000명), 50대(-7000명)와 비교해서는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0대의 고용보험 가입이 줄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에 퇴출된 30대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대 고용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신산업 진출 등으로 민간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0개 경제단체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신태현 기자 holjiak@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 경영계 “유감”

정충 등 10개 경제단체 “과도한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 왔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내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경영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달라”며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는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

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 매출이 제작년 대비 63% 줄었다는 통계를 받았다”며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당장 생존조차 걱정할 만큼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사기가 저하되고 버텨낼 힘마저 사라지게 된다.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기계를 보유한 현장이 한 업체당 300개에 육박하고 국내외 합쳐 건설업계 현장이 12만 개에 달하는데, 본사에 있는 CEO(최고경영자)가 이들 현장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기업 처벌에만 몰두해서는 기업의 설 자리만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멸망할 지경에 와 있다”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다. 지금 상태로는 (중대재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앞으로 법안이 안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법 제정이 되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후속 보완 조치를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2023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5000만원까지 공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부동산 임대업 소득공제 제외
中企 특허조사 R&D 세액공제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으로 정해졌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내년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기보유 주식에 대한선외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통합투자소득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정해졌다.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연구개발비(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주요 내용

※ 출처: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인·법인 주택별 세율 인상

(단위: %, 2021년 귀속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0억 원 유지

■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현행	개인	법인	현행	개인	법인	
3억 원 이하	0.5	0.6		0.6	1.2		6
3억~6억 원	0.7	0.8		0.9	1.6		
6억~12억 원	1.0	1.2	3	1.3	2.2		
12억~50억 원	1.4	1.6		1.8	3.6		
50억~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10억 원 이상	
코스닥	2%		
코넥스·비상장	4%		

용이 추가됐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서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술을 포함한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됐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제도 도입 전 양도할 필요가 없도록 내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현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합산 10억 원’ 기준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된다. 다만 실제 부가가치율과 과리가 큰 업종에 대한선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5~30%에서 15~40%로 함께 오른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에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리터당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외환보유액 4400억 달러 돌파... 7개월째 최고

외환보유액은 4400억 달러를 돌파해 7개월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초기 급등하던 환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던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유가증권도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를 넘겼다. 달러화 약세와 함께 거주자와외화예금 등 급증에 따른 금융기관 지준예치금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 대비 67억2000만 달러(1.5%) 증가한 44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4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6월 이래 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11월에는 환시개입 여파 등으로 98억7000만 달러나 급증해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대상 달러화지수(DXY)인 달러인덱스는 12월 말 기준 89.94를 기록해 전월 말(91.87) 대비 2.1% 하락했다(한국시간 기준 89.68, 2.3% 하락). 같은 기간 호주달러화는 4.0%, 유로화는 2.8%, 파운드화는 2.2%, 엔화는 0.8%씩 절상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나 정부기관체,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152억 달러 늘어난 409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등으로 보유하는 IMF에 대한 교환성통화 인출권리인 IMF포지션은 4억2000만 달러 증가한 48억2000만 달러를, IMF 특별인출권(SDR)은 1억5000만 달러 확대된 33억7000달러를 보였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코로나가 바꾼 전 트렌드 방향 아닌 속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난도 서울대 교수**

“코로나가 바꾼 것은 방향이 아닌 속도다. 유연하게 시장 방향을 전환하는 ‘피보팅’으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할 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경제·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이어가고, 또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 바이러스발 경제로 불리는 브이노믹스 시대에 기업과 개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남아야 할까. 이투데이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만나 그 해답을 찾아봤다.

익히 알려진 대로 김난도 교수는 2007년부터 매년 다음 해 소비 트렌드를 10개 키워드로 분석해온 트렌드 전문가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유행한 단어로 꼽을 만한 ‘언택트’ (비대면)도 김 교수를 주축으로 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2018년 만든 키워드다. 인터뷰 자리에 앉은 김 교수에게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져 평소보다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을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네자 “체감하는 반응이 (예년보다) 좋은 것은 맞다”면서 휴대폰을 열어 지난 10여 년간 쌓인 트렌드 키워드들을 보여줬다. △2009년 ‘다시 집으로’ △2010년 동네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통, 우리 동네’ △2012년 ‘위기를 관리하라’ △2014년 ‘편을 펼쳐라’ (플랫폼의 시대) △2019년 ‘스트리밍 라이프’ 등은 ‘언택트’처럼 현재의 키워드라고 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코로나는 트렌드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뜰 건 뜨고 죽을 건 죽는 변화를 가속화한 경향이 있다. 2009년 제시한 ‘다시 집으로’ 키워드를 예로 들면 그동안 재택근무나 비대면 강의의 수요는 꾸준했고 가야 할 방향이었는데 코로나가 변화의 속도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 코로나는 10년 걸리던 현상을 6개월 만에 해냈다”고 말했다.

◇모든 비즈니스는 ‘피보팅의 싸움’… 중심축은 ‘핵심 역량’과 ‘고객’= 김 교수는 2021년 키워드 중 가장 주목하는 용어로 ‘피보팅’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기업의 기민한 변화와 혁신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급부상한 피보팅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의 변화무쌍한 니즈에 맞추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DVD 대역 사업에서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성장한 넷플릭스가 피보팅의 대표 사례다. 김 교수는 “1990년대 미국에서 ‘비디오 대여점’ 대명사로 통했던 ‘블록버스터’는 몰락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우뚝 섰다. 블록버스터가 ‘자본’이 없어서 도전을 못 했을까? 최첨단 경영 기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 했을까? 아니다.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의 명암을 가른 건 오직 하나, 변화하는 환경에 피보팅했나 못했느냐”라고 말했다.

사실 피보팅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는 기존에 시장에서 쓰이던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동력’ 역시 같은 맥락”이라면서도 “피보팅은 ‘신성장 동력’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구분 짓는 시금석과 같다”고 정의했다.

그가 뜯어본 피보팅의 중심축은 △‘내가 뭘 잘하느냐’ (핵심역량) △‘우리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객), 이 두 가지다. 둘 중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업은 곧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피보팅의 핵심축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작은 혁신이 쌓인 ‘축적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

재택근무·비대면강의 ‘언택트’ 팬데믹 영향 변화 속도 앞당겨

급격한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 모델 전환 ‘피보팅’ 필요

전화번호 소개앱서 배달앱으로 배달의민족 ‘피보팅’ 성공 사례

기업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기존 사업 아이템이나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피벗(Pivot)은 본래 체육 용어로 몸의 중심축을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산업상에서 피보팅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전은 유지하면서 전략만을 수정하여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했다. 최근 유통 시장의 트렌드세터가 된 ‘마켓컬리’ 역시 작은 혁신이 이뤄낸 성공 사례다. 2015년 마켓컬리는 17개 상품으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에서 지금은 한 주에 300여 개 상품을 입점시키는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배달의민족도 마찬가지다.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가 애초에 구상한 사업 아이템은 114처럼 전화번호를 소개하는 앱이었다. 창업 당시 형제만 2명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방대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기하는 대신 음식점 전화번호를 타깃으로 삼았다. 음식점만 한정하니 자연스럽게 ‘주문’과 ‘배달’ 아이템을 추가하면서 사업 모델을 구체화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바일 전화번호부 사업’을 ‘모바일 배달사업’으로 피보팅하는 데 성공했다.

김 교수는 “피보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1mm씩 쌓여가는 변화와 혁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기업 경영전략실에서 1년, 2년씩 시장조사하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다른 세상이 돼 있



‘2021 트렌드 코리아’ 저자인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이제는 거침없이 피보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피보팅’에서 자유로운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보팅, 기업을 넘어 사람에게도 중요 = 김 교수는 ‘피보팅’은 기업을 넘어 사람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job)이라는 말은 직(職)과 업(業)이 합쳐진 말이다. 직이 ‘어느 회사에 다니냐’라면, 업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해당한다. 예전엔 한 번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평생 나를 책임져주고 거기에서 승진하면 성공한 인생이었던 만큼 ‘직’ 위주의 사고를 했다. 지금은 회사도 많이 옮기고 내가 하는 일이 확실해야 어디서건 살아남을 수 있는 ‘업’이 중요해진 세상이 됐다.

김 교수는 코로나 시대가 보여준 ‘휴먼 피보팅’ 사례로 유튜브를 꼽았다. 코로나로 유튜브 플랫폼이 급격히 비대면지면서 미디어의 지형이 달라졌다.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언론사의 타이틀(직)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역량(업)을 활용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 교수는 “이른바 ‘뷰카(VUCA)’의 시대로 불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선 블록버스터, 코닥 같은 큰 회사도 망한다. 이 사회가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목해보고 그 일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피보팅’이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설명했다.

◇휴먼터치, 기술 만능주의에 경종 울리고 싶어 = 코로나는 언택트·플랫폼·인공지능·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우리에게 거스를 수 없는 ‘기술의 시대’를 확인시켜 줬다. 많은 시장 전문가도 ‘대세는 기술’이라는 의견에 입을 모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오히려 다시 ‘사람’에 주목했다. 기술 만능주의나 우월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마음에서다.

그는 기술이 채울 수 없는 무언가는 ‘인간’만이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고객에게 디지털 기술을 제공할 때 인간과 기술을 상호보완해야 소비자 만족도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완성은 ‘휴먼터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기계는 단순 계산이나 간단한 영역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창의적인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걸 본 것이다. 실제로 어느 순간부터 기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적인 요소를 거

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면 그건 결국 인간의 몫이라는 의미다.

그가 상상하는 기술과 인간의 협업은 어떤 모습일까. 병원을 예로 들면 의사는 간밤에 잠을 설치 환자에게 “어제 많이 아프셨죠? 인공지능 데이터를 보니 지금 증상에선 약을 바꾸는 게 좋다고 나오네요. 제가 살펴보니 관장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회전을 돈다. 김 교수는 “빅 데이터로 자가진단하고, 처방받은 약이 기계에서 튀어나오는 등 기술이 인간을 모두 대체하는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의 질병 진단으로 시간을 아낀 의사가 환자와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하듯, 인간과 기술은 ‘배제’가 아닌 ‘보완’의 방식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된 집… 코로나가 더 높은 집(家)착=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사는 집과 인근 동네는 소비 트렌드에서 꾸준히 영향력이 커져왔지만 코로나로 전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보다 ‘타성’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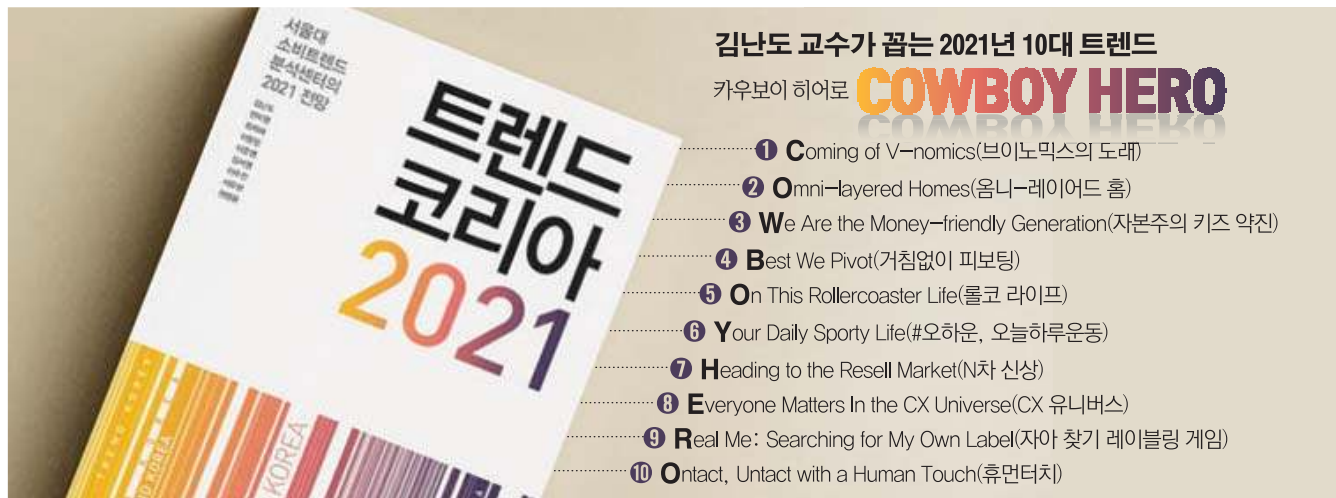
□ 김 교수는 “선진국이 될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거리’에서 ‘집’으로 몰려가는 것이 관찰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인구는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이 많았지만 여기서 간과한 점이 하나 있다고 짚었다. “집은 ‘가구’의 문제인데 지금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4인 가구 기준의 5000만 명과 1인 가구가 많은 시대 5000만 명의 집에 대한 수요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구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집은 ‘하우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김 교수는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수업도 듣고, 홈트레이닝도 하고, 홈파티도 하고, 스크린을 놓고 영화관처럼 영화도 보고... 모든 걸 다 하는 공간이 됐는데 내 집 크기는 항상 똑같다.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넓은 집으로 가면 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 공간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에서 ‘레이어드홈’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거다. 앞으로 주택 수요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비패턴도, 투자목적도 다른 ‘자본주의 키즈’가 온다=세대별 소비 트렌드를 살펴본 그가 올해 주목한 이들은 ‘자본주의 키즈’다. 그는 이들에 대해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 자본주의 논리가 체화된 세대”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도록 포장박스 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거나 자신이 번 돈이라며 지폐 다발을 흔들며 자랑하는 ‘플렉스’에 열광한다.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소비는 자본주의의 섭리라 여기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부러움을 숨기지 않는다.

김 교수는 한 인간의 세계관을 규정짓는 강력한 기준으로 ‘경험’에 주목한다. 소비자로서 자본주의 키즈가 이전 세대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배경 역시 그 세대가



돈·소비 편견 없는 새로운 세대 ‘자본주의 키즈’ 등장 주목해야 세대 갈등엔 서로 강요하지 않고 이해하는 ‘그러려니’ 지혜 필요

겪은 ‘경험’이 달라서다.

그는 “나는 1960년대 빈곤의 시대를 산 세대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결, 두 체제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한 세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세대는 두 체제를 학교에서 글로만 배웠을 뿐, 경험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린 시절 IMF 경제위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를 겪고 자랐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더 잘 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젊은 세대의 세계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인지 ‘공격적인 투자’는 자본주의 키즈가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이다. 자본주의 키즈의 셀프 재무관리는 돈 모으기에서 시작된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지난해 가장 많이 화자됐던 단어 중 하나가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주식투자 초보자)였는데 이제는 진짜 주식하는 중고생은 물론 ‘어린이’까지 등장했다”고 주목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키즈는 투자 목적도 기성 세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파이어(FIRE)’ 운동과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파이어는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의미하는 약자로, ‘절을 때 바짝 벌어서 빨리 은퇴하자’라는 의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의 이런 생각은 투자 목적뿐 아니라 근로관까지도 바꿨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기성세대는 ‘정년을 연장해 달라’, ‘퇴직하면 치킨집을 내야 하나’ 등 어떻게든 경제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키즈나 파이어족은 ‘내가 일 년에 쓰는 돈의 몇 배만 모으면 은행 이자로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목표 의식으로 돈을 모은다”고 설명했다.

◇세대 갈등엔 강요하지 않는 ‘그러려니’의 지혜 필요= 이런 자본주의 세대가 기성 세대와 갈등 없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이 질문에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내 인생관은 ‘그러려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난 내 아들과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소득 87달러에 태어난 후진국 국민이고, 아들은 1만

디지털 전환의 완성은 ‘휴먼터치’ 인간과 기술은 배제가 아닌 보완 급변하는 세상, 타성에 젖지 말고 꾸준히 새로운 트렌드 쫓아가야

7760달러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사실상 다른 나라 사람’이라며 “그러니 서로 강요하지 말고, 세대별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대 갈등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다. 해법을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쩌면 평생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대가 서로 이해해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이해하는 ‘그러려니’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멘토와 꼰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강요’가 바로 세대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각자가 가진 삶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자주 강요하려는 생각이 ‘꼰대’의 특징인데 비해 멘토는 그 반대다. 조언을 구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들어주고, 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언을 전한다. 그리고 이 조언을 수용할지의 여부는 온전히 청년에게 맡기는 거다.

◇두려워해야 하는 건 ‘바이러스’가 아닌 ‘타성’=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꿨고, 또 앞으로도 바꿀 것이다. 끝이 보일 것 같은 희망에 내걸었던 ‘포스트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가 됐다. 이에 김 교수는 “포스트나 위드나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 하나는 ‘피보팅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살아남을 수는 없다’라는 급박한 메시지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는 저도 모르게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그동안 트렌드가 천천히 끓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확 불을 붙였다고 본다. 분명한 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급변하는 세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을 향해 김 교수는 ‘꼭 다 맞출 필요는 없다. 살던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해 준다. 하지만, 누군가를 상대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들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돈을 지불하는 이들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

김 교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처럼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잊지 말아야 한다. 타성에 젖지 말아야 하며 꾸준히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야 한다. 진정한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타성이다”라고 말했다.

트렌드 얘기로 가볍게 시작한 인터뷰는 서로에게 강요하지 말고, 조금 더 양보하고, 타성에 젖지 말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묵직한 깨달음으로 끝을 맺었다.

대답=이효영 부국장 겸 유튜브이모부장 hylee@정리=유혜림 기자 wisefore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21. 01 VOL.73

New Senior Life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역적 박신' 만들기

PART3. P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티투이스트 조영진

책임감 있는 자유 노리는, 계절의 나이를 살다
가수 겸 정신과 의사 김창기

'낙숫물이 비워져 구멍을 내듯' 청춘의 삶이길 것
변호사 원영섭

재미있는 성 인문학 시시장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파러서 유행이다. 그런데 성만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행'이라 표기하는데 어떤 이렇게 적합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라기까지 하다. 성은 그 사람의 본성을 뜻한다. 배정원의 성 인문학은 역사, 예술, 사회 등

라며,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와 명동답거나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막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더 벌어진 양극화... 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현장 근로자에 재택은 '판 나라 얘기' 택배기사 16명 과로사
주식·부동산 호황 속 자영업 절벽...코로나 끝나도 '상처'로

〈끝〉 '사회적자 심화' 해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새로운 불평등을 낳았다. 최근 영미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불거진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뜨거운 감자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생기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이름으로 각종 격차가 생겼다. 취약층의 근로·사업소득은 줄어드는데 자산가들의 재산소득은 늘어나는 초유의 괴리 상황이 대표적이다. 자산·교육·부동산·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불평등은 '신(新) 카스트' 제도를 방불케 한다.

◇위험 무릅쓰고 밖으로 = 한진택배 소

속 기사 A(58) 씨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하루에 택배 270~280개를 분류하고 배송하는 등 14시간씩 과로에 시달렸다. A 씨 외에도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 1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기사와 근로형태가 유사한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최근 배송량이 급증하면서 과로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동안 약 200건의 택배를 배송해왔다. 점심을 못 먹는 횟수가 1주일에 2~3회에 달한다는 이들은 4989명 중 23.2%였다.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S(32) 씨

에는 재택근무가 '뉴 노멀'이 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집(안산)에서 직장(서울)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주변 친구들도 대체로 재택근무를 하는 분위기여서 이게 일상이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빨간불'은 달랐다 = 강서구에서 생과일음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Y(52) 씨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서야 배달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이크아웃 손님만 기다리다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던 순간이었다.

최 씨는 "배달대행 서비스 수수료가 55%가 넘어 남는 게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월세만 겨우 내면서 가게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소상공인(자영업

자)들을 유독 힘들게 했다.

통계청의 '2020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3월 시작된 취업자 감소 추세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주로 사라진 일자리는 숙박과 음식, 도·소매, 교육 등 대면서비스와 임시일용직이다. 위기가 올 때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진다.

배달서비스나 중개 플랫폼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도 우상향하고 있다.

◇"인식 개선 중요" = 코로나19는 양극화라는 이름의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격차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을 나누는 선이 예전보다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는 건강과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생긴 선은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선들이 계속 엮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역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인데, 실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질됐다"며 "이것이 잘못된 사회 시그널을 줘 취약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오히려 도움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코로나 상황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ksh@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대면 지원 끊겨 '이중고'

취약계층 지원센터 무조건 휴관
'비대면 상담' 등 대안 제공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고령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대면 지원이 대부분 끊겼다. 거리두기로 인한 유관시설의 휴관이 이들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

정전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는 6일 "재난이 닥치면 시야가 좁아져 '거리두기' 같은 확립적 정책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임시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세우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살 고위험군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우선으로 세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시기에는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면적·다각적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진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실체를 알았으니 '무조건 휴관'하는 일방적 방역대책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비대면 서비스가 깊이 있는 상담에서 가벼운 안부 확인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관계기관에서도 심리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커지는 '낙인'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은 "코로나 낙인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감염 경로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 진단 참여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어 자칫 확산이 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치료를 잘 받으면 전파력이 점차 줄어들고 완치 후에는 전염성이 없다는 사실을 방역당국 등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받아들이는 개인차 때문에 현실적인 스트레

스도 증가하고 있다. 백 센터장은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역이 유별나다'고 편견을 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방역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존중·배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모임 인원수 제한 외에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단순히 제한 수 이내 모임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무작정 비난받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한민국 배터리의 꿈을 꾸다

1982년 SK 배터리 사업 비전 설정
1985년 SK 배터리 등 개발 연구소 업계 최초 설립
국내 최초, 최대의 정유·화학회사로 1962년 설립된 유공은 現 SK이노베이션의 전신임



대한민국 배터리의 꽃을 피우다

2004년 SK 배터리 안전 핵심소재 LiBS(분리막)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상업화 성공. 2005년 본격 생산
2006년 SK 자동차용 중대형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성공
2009년 SK 배터리 글로벌 첫 수주(D사)
2010년 SK 배터리 탑재된 국내 첫 전기차 생산
2011년 SK 배터리 글로벌 슈퍼카 공급 업체 선정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와 함께하다

SK 배터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SK 배터리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미국)
SK 분리막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한국, 중국, 유럽)



대한민국 배터리의 싹을 틔우다

1991년 SK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 시작
1992년 SK 대한민국 G7과제 전기차 배터리 개발 주관기관 선정
1993년 SK 배터리 전기차 시험운행 성공
1996년 SK 리튬이온배터리 개발 시작



대한민국 배터리, 세계를 놀라게 하다

NCM622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2)/첫 양산(2014)
NCM811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6)/첫 양산(2018)
NCM9½½ 기술 적용 배터리 세계최초 개발(2019)/첫 양산(2022예정)
NCM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기술로,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N(니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최첨단으로 국내외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전후부터 글로벌 수주를 해 오고 있음

dfi Innovation

세계를 움직이는 K-배터리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전기차 개념도 희미하던 38년 전,
에너지축적배터리시스템은 SK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 개헌·선거제도 개편해야”

신년 기자간담회

국민통합위·코로나 특위 구성
국회, 남북문제 조건없이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며, 궁극적으로 개헌·선거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통합을 비롯한 3가지 나아갈 방향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선 중장기 국가 발전에 대한 국회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혼돈, 이념 과잉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을 이룰 때에만 전진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이 국민통합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융광로 역할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통합의 궁극적 완성은 개헌, 선거제도 개편(득표율 비례 의석수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통해 권력분산을 이루고, 국회가 그 권한 일부를 가져올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계 여러 나라 국회와 같이 우리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선거국면 돌입해도 국민안정과 민생부터 지켜내는 정치를 하자”면서 “백신 등 치료제 도입 및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긴급 생계 지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익 중심의 초당적 의회 외교에도 나서야 한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박 의장은 3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남북관계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강대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최종 주체는 남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민 공감대 절실히 필요하며, 그럼에도 미국,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반성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많았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국회가 동의 해주지 않아서”라면서 “이제는 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3가지 민주주의, 동맹, 미국리더십의 부활 3가지에 기초한다”면서 “여기에 미국 코로나 문제까지 더해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 문제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 국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비핵화 평화제안을 미국에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며 “2월 방미 시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한반도에 대한 관심,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검증은 공개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서울시장 선거 與 인재난 ‘외부 인사’ 영입 나설까

국민의힘 10여명 후보 난립
민주, 박영선·박주민 ‘장고’
김동연 전 부총리 ‘차출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재난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이는 이상호 민주당 의원뿐이다.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여야가 뒤바뀐 모습이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우세 아래 당시 민주당 의원인 박 장관과 우 의원이 경선에 뛰어들며 흥행몰이를 했다.

3년 만에 났던 인재난에 정치권에 서는 민주당이 ‘문호’를 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여 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한 국민의힘조차도 경선 룰 상 여론조사 비중을 높여 외부인사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지지세가 열세인 상황에서 외부수혈을 피할 수 없지 않는 것이다.

그 조짐으로 보이는 건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 출마 자격을 입당 즉시 가능도록 바꾼 당헌·당규 개정이다. 이에 따라 7일 선거기획단이 경선 룰 회의에서 기존 당원 50%·여론조사 50%가 아닌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거나 당 일각에서 제시된 시민평가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기획단 내부는 이를 두고 반반으로 나뉘었다.

현역 의원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컨벤션 효과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한 건 맞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인위적으로 영입하는 안은 사실무근이지만 외부 인사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현역 의원은 “지지세가 밀리는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때문이지 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당 공천 시스템은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외부인사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7일 선거기획단 회의에 이목이 쏠린다. 당 최고위원회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결한다는 계획이라 선거기획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외부인사를 고려한 경선 룰 변화가 생긴다면 김 전 부총리 차출설이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박 장관의 행보와 연관된다.

박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달 내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중진으로서 정치신인인 김 전 부총리를 추천하며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박 장관이 김 전 부총리의 입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부산시장 출마가 점쳐졌던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정치신인인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지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선박 나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술적 문제’ 선그은 이란… 정부 대표단 ‘빈손’ 우려

외통위 “이란, 법률적 절차 조사”
원유 대금 9조 동결에 불만 분석

정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교섭 실무대표단의 현지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란 측이 ‘기술적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대표단이 현장에 파견되더라도 빈손으로 올 가능성이 지적된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국적의 9700톤급 화학운반선 ‘한국 케미’호(號)를 나포해 한국인 5명 등 총 20명의 선원을 억류하고 있다.

고성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실무대표단은 이르면 6일 밤 이란 테헤란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한국 대표단의 방문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상태여서 일정은 연기될 수 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외통위 긴급 간담회에서 간담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 외교부는 ‘법률적 절차로 조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불만 표시로 보는 건 과장된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철저히 기술적 문제이고 환경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문제랑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통화했지만, IMO 차원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선박 억류 건은 해양 오염 행위에 따른 완전히 기술적인 이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최종건 외교 1차관이 오는 10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확인한 뒤 이번 방문은 예정됐던 것으로 선박 억류 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은 명시된 법적 절차대로 처리될 뿐 외교적 방문은 요구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외교 일정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한 데 따른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포 이유로 해양오염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 계좌에서 이란 원유 수출대금 70억~90억 달러(약 7조5600억~9조7200억 원) 동결되자 이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정은 “경제 목표 엄청나게 미달”

北 8차 당 대회… 대책 마련 지시
김여정·조용원 지도부 전면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목표로 내세웠던 과제들을 사실상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전면예 내세우며 집행부를 대거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조선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대회는 북한 최대 정치행사로 1945년 10월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8번 열렸다. 가장 최근 노동당 대회는 김 위원장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던 2016년 5월 열린 7차 당 대회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 개회사에서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것까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함의 원인을 객관적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당 대회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국력 강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 점이 되고 역사적 이정표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가 마무리되면 대남·대미 노선과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대회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당 대회 역시 하루에 그치지 않고 며칠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요 의제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승인됐다.

박준상 기자 jooon@

‘경제보다 방역’… 선진국, 코로나 확산 저지 ‘발등의 불’

日, 사망자 급증 ‘비상사태’ 선포
英·獨, 변이 바이러스 차단 총력
美 “가망 없으면 이송 말라” 지침

전 세계가 우울한 새해를 맞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다. 비상이 걸린 선진국들은 다시 봉쇄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경제 위축 우려에도 추가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일본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5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4915명으로 집계됐다. 이 로써 누적 확진자는 25만4152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하루 새 76명 늘어 누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3769명이 됐다.

상황이 악화하자 일본 정부는 뒤늦게 긴급사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 작년 4~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비상사태는 도쿄도,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유럽도 비상이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이날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916명으로 사상 처음 6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77만4479명과 7만6305명이 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날부터 잉글랜드 전역

에 3차 봉쇄조치를 도입했다. 새 봉쇄조치는 최소 6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46억 파운드(약 6조8000억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내놴다. 60만 개 소매업체가 최대 9000파운드의 현금을 받게 된다.

독일도 봉쇄조치 강화에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16개 주지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봉쇄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상황이 더 긴박해졌다”며 “새롭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강화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 1명만 허용된다. 또 모든 비필수 업종과 학교, 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동도 제한된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

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인 급확산 지역에서는 출퇴근,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 반경 15km 이상 이동할 수 없다.

의료 자원 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미국에서는 특단의 조치까지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응급의료서비스(EMS)실은 구급대원들에게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들이 최소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그래도 회복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또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진 환자에 대해서만 산소호흡기를 쓰도록 했다. 5일 시점 미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97만7000명, 3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변호사,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6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가 건물 밖을 나서고 있다. 그는 홍콩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허세웨이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그를 포함해 50명이 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홍콩보안법의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로 무더기 체포했다. 클랜시는 지난해 6월 말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체포된 미국인이며 아주인권위원회 대표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임기 보름 남은 트럼프, 중국 앱 추가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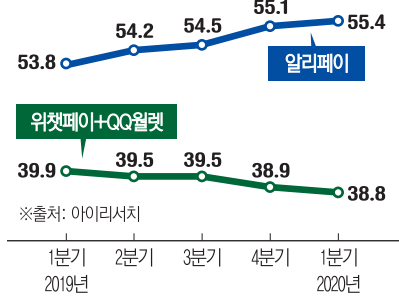
8개 앱 사용 금지 행정명령… NYSE, 중국 3대 이통사 상폐 다시 검토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까지 중국 옥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앱을 추가로 제재하는 것은 물론 뉴욕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양대 모바일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포함해 8개 중국 앱에 대해 미국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두 앱 이외에 캠프캐너와 QQ월렛, 셰어잇, 텐센트 QQ, V메이트, WPS오피스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 행정명령은 45일 후에 발효된다.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이 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된다. 즉,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긴 것이다. 차기 정권이 트럼프 행정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중국 앱 사용금지에 나서면 미·중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면 중국에 굴

중국 모바일 결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북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들 앱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과 계약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이 알리페이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중국인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는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홀딩스가 알리페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위챗페이를 갖고 있다. 위챗페이를 사용자도 9억 명 이상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동영상 앱 틱톡과 위챗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두 기업에 대한 행정명령 모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상장폐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NYSE는 지난해 마지막 날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의 상장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전날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NYSE 결정에 발끈한 트럼프 정부가 바로 행동에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스테이시 커닝햄 NYSE그룹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를 걸어 따진 것이다. 당국 눈치를 본 NYSE는 다시 상폐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신차판매 15% 감소 ‘8년래 최악’

닛산 33%·현대차도 10% 감소… 올해 전망은 긍정적

지나해 미국 신차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8년 만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새해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러 업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 대수가 1440만~1460만 대로 추산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실제로 이날 제너럴모터스(GM)는 작년 신차 판매가 11.8%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0% 감소했다고 전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는 각각 11%,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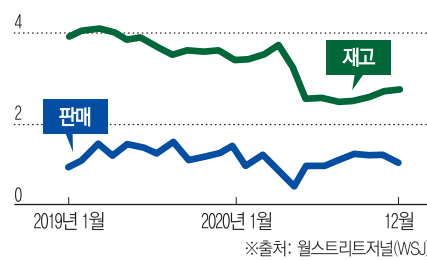
WSJ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과 자동차 가격 급등,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시장조사 업체 모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해 미국 판매는 11월까지 약 15% 증가한 18만 대를 기록했다. 아직 미국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테슬라는 지난주 전 세계 판매량이 약 50만 대로 전년보다 36%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는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회복 조짐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

미국 신차 판매 및 재고 추이

(단위 : 100만 대)



다. GM의 4분기 매출은 4.8% 증가했고, 현대차는 12월 판매량이 2% 늘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역시 4분기 판매 속도가 연초보다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2020년에 현대차는 미국에서 62만2269대를, 기아차는 58만6105대를 각각 판매했다. 각각 전년보다 9.6%, 5%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9년에 5% 준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출시와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맞춰 온라인 판매 채널을 도입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추가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에 힘입어 새해에도 신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는 심리가 수요를 자극함과 동시에,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공급이 줄어든 점이 낙관론에 힘을 실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유창욱 기자 woogi@

사우디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 4.9% ‘경충’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인 원유감산 결정에 5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4.9% (2.31달러) 오른 49.93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4.87% (2.49달러) 오른 53.58달러로 집계됐다. WTI는 장중 5.4% 오른 배럴당 50.17달러로 지난해 2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을 포함한 OPEC+는 회상회의를 열고 2월과 3월 소폭 증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일 감산 규모는 현

720만 배럴에서 2월 712만5000배럴, 3월 705만 배럴로 축소됐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2월부터 3월까지 일일 생산량을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50만 배럴 증산을 주장하자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다. 전날 회의에서도 증산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 OPEC+는 회의를 이날까지 하루 더 연장했고, 우려 속에 유가는 전날 하락했다.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연구원은 “WTI 가격은 OPEC+가 내달 생산량을 올리는 대신 감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때 50달러 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RBC의 해리마 크로프트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셰일유 업계에 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저금리 기조에 수익 정체… 올해 금융권 어둡다”

금융위, 금융업권 간담회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금융지원 체계 점검과 K-뉴딜, ESG 관련 투자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김운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올해 금융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 저금리 기조 지속과 수익정체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놔다.

연구소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

하나금융 “코로나 불만 지속

안정적 성장 금융정책 추진해야”

BCG “결제·송금 등 경쟁 심화”

정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코로나19 지원 연착륙 방안 마련과 가계부채의 적극적 관리로 금융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로는 △경제 △자금흐름 △사회변화 △경쟁구도 등 4가지 측면을 구분했다. 경제 측면에서는 저성장과 저금리 장기화, 풍부한 유동성과 자산가격 변동성 심화를 꼽았고, 부동산가격의 단기화 완화와 함께 투자행태가 간접에서 직접으로 전환하는 자금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언택트의 보편화를 비롯한 사회변화와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업 진입 가속화 및 오픈뱅크 고도화 등 경쟁구도

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올해 결제·송금 등에 대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 대중화로 WM(자산관리) 산업으로 중심이동이 될 것이라며, 이는 금융시장의 큰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스턴 컨설팅그룹이 선정한 올해 주목해야 할 7대 진화방향은 △결제·송금 등은 고객접점의 주요 경로로서 국내·외 경쟁이 심화 △투자 대중화로 WM 산업으로의 중심이동 △글로벌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 경쟁 확산 △제판 분리, 플랫폼 성장으로 내·외부 채널 연계, 결합 등 합리화 전략 필요 △고객 최점점 확보를 위해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간 경쟁심화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객맥락 이해 기반의 고객관계 강화 필요 △고객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 등이다.

서지연 기자 sjy@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스마트화상방식으로 진행된 1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통 금융 고집 말라” ‘혁신’ 강조한 진옥동

신한銀 임원·본부장 워크숍

“니즈 변화 기반 속도의 경제 시대

이중산업 융합 등 빠른 대응 필요

디지털 능력 못 갖추면 도태될 것”

“전통적인 금융만을 고집해서는 안됩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1분기 임원, 본부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은 ‘일류(一流) 도약을 위한 신한’의 킹핀(King Pin)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신한금융그룹 경영포럼에서 제시된 핵심 아젠다를 구체화했다.

◇은행 올해 핵심 전략 ‘혁신금융’ = 진 행장은 “규모의 경제를 지나 고객의 니즈가 수시로 변하는 속도의 경제 시대이며 끊임 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려면 발 빠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 게임 업체 등과 추진 중인 새로운 탈금융서비스를 언급하며 ‘혁신’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안에 ‘쌀’ 앱에 음식 주문·결제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행장은 또 게임과 금융 등을 융합한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넥슨과의 제휴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신한은행과 넥슨은 지난달 20일 혁신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진 은행장은 “한 쪽 다리는 축으로 고정

하고 다른 쪽 다리로 회전하며 다음 움직임으로 준비하는 ‘피보팅’처럼 금융의 본원적 경쟁력을 기본 축으로 삼고 ‘가설 설정·실행·수정’의 과정을 반복하며 유연한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소통·협력 통한 빠른 의사결정 = 진 은행장은 고객중심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같이성장평가’와 그 동안 강조해왔던 ‘과정의 정당성’과 ‘신의성실’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그룹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미래 금융의 기준, 일류’의 도약을 설명했다. 그는 “2021년에는 고객중심 가치를 위한 추진력을 높여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며 “소통을 통한 빠른 의사결정과 각 사업 영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진 행장은 “디지털데이터·위기관리·민첩한 변화·조직소통·집단창조력·3차원협상력 등 디지털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어 갈 수 밖에 없다”며 “미래 역량 준비는 생존의 문제이며 여기 계신 리더들이 변화의 판을 만들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그는 진 행장은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올해에도 우보만리(牛步萬里)처럼 우직하게 걸어간다면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안타 티레이더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원리금,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발생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62호(2019.02.28)

기업銀 ‘탄소자원화’ 효진오토테크에 60억 투자

IBK기업은행은 ‘IBK-KIP 성장디딤돌 제1호 사모펀드(PEF)’의 투자기업으로 효진오토테크를 선정하고 투자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60억 원으로, 효진오토테크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형태다.

효진오토테크는 자동차 차체 정밀가공·조립 관련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13년부터는 탄소자원화 사업에도 진출해 플라즈마 탄소전환 설비 개발에 성

공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동차 사업 부문은 물론 제철소, 발전소 등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에서 탄소전환 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탄소자원화 사업 부문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IBK-KIP 성장디딤돌’ 사모펀드는 지난 2017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다.

서지연 기자 sjy@

새마을금고, 디지털 전담반 가동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디지털금융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외부 전문 IT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이 조직을 만들었다.

디지털 전담반은 비대면 뱅킹 채널의 △비대면 사용자환경·경험(UI·UX) 개선 △고령자 특화 서비스 개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다양한 인증서비스 확대 △신기술/신 서비스 등의 개발을 맡았다.

전담반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면서 기존 새마을금고 IT 개발인력과 금융서비스 개발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언택트 금융 환경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자 전담반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이재용 “미래기술 확보해야 생존”…3일 연속 현장경영

삼성리서치서 중장기 전략 회의 6G통신·인공지능 개발현황 점검 “회사 가치 높여 사회에 기여하자”

“미래기술 확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변화를 읽어 미래를 선점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삼성리서치서 찾아 중장기 신사업 점검에 나섰다. 새해를 맞아 3일째 이어지고 있는 현장 경영 행보다. 삼성리서치는 미래 유망 분야의 선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곳이다.

매년 초 다수의 국내외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과 새해 사업전략을 챙겨 온 이 부회장은 올해 역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삼성리서치에서 세트부문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현황 등 미래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은 회의에서 △차세대 통신 기



이재용(오른쪽 두 번째)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사장단과 삼성리서치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술 연구 경과 △서버용 기술 확보 △AI 기술 제품 적용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현석 CE부문장, 고동진 IM부문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세바스찬 승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및 각 사업부 담당 사

이날 이 부회장은 미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전념하자”며 “선두기업으로서 몇십 배, 몇백 배 책임감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시스템 반

이재용 부회장 5·6G 관련 글로벌 행보

2018년	2월 인도 현지 사업 점검
2월	UAE 왕세제 5G 관련 협력 방안 논의
5월	일본 KDDI, NTT 경영진 면담
6월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CEO 미팅
10월	일본 KDDI 5G 장비 계약
2020년	9월 美 버라이즌과 5G 장비 계약

도체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삼성리서치에서 선행기술 개발 회의를 주재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최근 “신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사명감을 갖고 회사와 산업 생태계를 키워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AI, 5G(5세대 이동통신), 전장용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구현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삼성의 ‘미래육성사업’으로 선정하고 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리서치는 산하에 △글로벌 AI센터 △차세대통신연구센터 △소프트웨어혁신센터 등을 두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AI

를 접목한 스마트폰, TV, 가전제품의 기능 혁신을 연구한다. 차세대통신 분야에서는 6G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은 이 부회장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육성해 온 사업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1년 3G 기술이 확산하던 당시 5G기술을 전담할 차세대 통신연구조직 신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차세대 통신사업 육성 의지에 따라 삼성은 5G에 이어 6G 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차세대 6G 비전을 제시하는 6G 백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The Next Hyper-Connected Experience)’을 공개한 바 있다.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등 전 세계 주요 통신기업 중 처음으로 공개한 6G 관련 백서다

6G는 AI·반도체·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이끄는 기반 인프라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그리는 미래의 뼈대라는 게 이 부회장의 판단이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 목적지 기반 모빌리티 집중한다

현대차 도심항공 서비스와 연계 최종 목적지까지 자율주행 제곱 신규 로고 적용 첫 차 3세대 K7

기아자동차의 브랜드 개편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의 일환이다. 과감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젊은 감각을 유지하되 ‘브랜드 방향성’을 전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공개한 새 브랜드 로고와 슬로건, 사명 교체 전략 역시 이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로고 교체는 전기차 회사 전환을 뜻한다. 새 로고를 활용한 첫 번째 기아차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3세대 K7이다.

슬로건 교체에도 숨은 뜻이 있다. 그동안 현대차는 ‘니어(Near) 럭서리’를, 기아차는 ‘스포티와 고성능’을 강조했다. 기아차의 슬로건 ‘파워 투 스프라이즈’도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향점은 전기차를 바탕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다. ‘자동차 공유와 셰어링’을 확대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까지 책임진다.



드론으로 하늘에 그린 기아 신규 로고

새 슬로건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Movement that inspires)’는 이에 맞춰 ‘감동적 움직임’을 뜻한다. 자동차 제조사를 벗어나 서비스까지 추구하면서 사명에서 자동차(Motors)를 걸어냈다. 이제 기아차(KIA Motors)가 아니라 기아(KIA)다.

이런 브랜드 전략 개편은 현대차그룹 전체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의 한 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CES 2020’을 통해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적 핵심축이 존재한다.

먼저 목적지 인근 거점까지 이동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이후 최종 목적

지까지 자율주행차로 이동하는 목적지 기반 모빌리티(PBV)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허브(HUB)다.

UAM은 현대차가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첫 이착륙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기아차는 허브(HUB)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PBV에 주력한다.

송호성 기아차 사장은 전날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PBV는 우리가 글로벌 1위 될 수 있는 분야”라며 “기존 차량 활용 외부 플랫폼과 자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기반을 둔 PBV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CES 2021 미리 보기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 선보인다

배송·충전·카셰어링 한자리에

GS칼텍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 처음으로 참가해 드론 배송과 미래형 주유소 <사진>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GS칼텍스는 11일(현지시간)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CES 2021에서 3편의 영상을 통해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을 비롯해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을 선보인다.

먼저 ‘드론 물류 실증사업’ 영상에는 GS칼텍스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한 드론 배송 시연 내용을 담았다. GS칼텍스는 작년 6월 제주도 무수천주유소에서 편의점 상품 드론 배송 시연행사를 개최했다. ‘도서지역 드론 물류 사업모델’ 영상에는 여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금오도 소재 초등학교에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연출 장면을 담았다.



다. 마지막 ‘주유소 미래 모습’ 영상은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 새롭게 문을 연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 삼방’을 촬영한 뒤 그래픽 작업을 통해 주유소 미래 모습을 구현했다.

이 영상은 주유소가 전기·수소차 충전, 카셰어링, 마이크로 모빌리티, 드론 배송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과 향후 드론 격납·충전·정비, 드론 택시 거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미래 모습을 보여준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전자, 스타트업 참가 지원 역대 최대

총 21곳…C랩 우수과제 공개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4일까지(미국 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 총 21개 국내 스타트업 참여를 지원한다. 이는 2016년부터 CES 참가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상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트’의 우수 과제 4개를 처음 공개하고, 사외 스타트업 대상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가 육성한 스타트업 17곳의 온라인 전시 참가를 돕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C랩 인사이트 4개 과제는 최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시장성과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 과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화관 화질을 그대로 집에서 즐길 수



어린이 성장 관리를 도와주는 ‘맥파이테크’ 디바이스로 어린이의 키를 재고 있다.

있도록 해주는 TV 화질 조정 솔루션 ‘이직칼(EZCal)’ △산소를 간편히 저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디바이스 ‘에어포켓(Air Pocket)’ △의류 소재 분석에 AI를 활용해 의류 관리 최적 솔루션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IoT) 디바이스 ‘스캔앤다이브(Scan&Dive)’ △음식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는 서비스 ‘푸드앤소믈리에(Food&Somelier)’ 등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지난해 수입차 27만대 판매 ‘신기록’

전년대비 12% ↑…일본차 반토막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이 27만대를 넘어 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이어진 반일 열풍에 따라 일본차 판매량은 반 토막 났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판매된 수입차는 27만4859대로 집계됐다. 2019년(24만4780대)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산차 5사의 내수 판매량이 전년대비 4%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수입차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을 거둔 셈이다.

1987년 KAIDA 집계가 시작된 뒤 수입차 연간 판매량이 27만대 선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차 연 판매량은 1996년 처음으로 1만 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11년에는 10만대를 돌파했다. 2015년에

는 연 판매량이 20만대를 넘었고, 2018년에는 종전 최대치인 26만705대가 팔렸다.

수입차 시장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일본차 5사(토요타·렉서스·혼다·닛산·인피니티)는 지난해 2만564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43.9% 감소한 수치다. 기존에 15%에 달하던 일본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도 7.5%까지 급감했다.

미국과 유럽 브랜드는 일본차의 빈자리를 채우며 선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7만6879대를 판매하며 브랜드별 등록대수 1위에 올랐다. 2위는 BMW로 집계됐다. BMW는 전년대비 32% 늘어난 5만8393대를 판매했다. 이어 3위 아우디 2만5513대(113%), 4위 폭스바겐, 5위 볼보, 6위 쉐보레 등도 전년대비 더 많은 차를 판매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대한항공 만료 마일리지 내년까지 유효기한 연장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여행 제한으로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편된 스카이패스 제도의 시행시한을 기존 2021년 4월에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고지 3개월, 유효기간 3년 등 총 3년 3개월의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한,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도 2년 연기해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

대한항공은 2021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가로 사용기한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미 한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마일리지(2020년 말 만료분)도 추가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출범 1년 만에 ‘1兆기업’

産銀서 1000억 투자 유치…사전기술평가 최상위등급 획득
카카오워크 등 주요 사업 고도화·신사업 투자 등 활용 계획
백상엽 대표 “국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도기업 될 것”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출범 1년만에 1조 원 가치를 인정 받았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플랫폼 기업이다.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종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 클라우드 등 카카오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한 비즈

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이자 국내 산업의 필수 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업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투자에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사전기술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상위 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성, 디



지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12월 출범 후 1년여간 특허청, NH투자증권, 에버랜드, 교보생명, KBS, 코맥스 등 다양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 파트너들과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가전, 문화, 레저, 헬스케어,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기업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도 출시 3개월만에 ‘워크스페이스’ 개

설 수 10만 곳을 돌파하며 국내 협업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올해 테크,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IT인프라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의 10년 간 데이터 구축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클라우드 솔루션 플랫폼 ‘카카오 클라우드’는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다. 현재 카카오 공동체 내부에 도입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번 투자금을 카카오워크, 카카오 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 고도화, 신규 사업 영역 진출을 위한 기술 투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백상엽(사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

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혁신 DNA와 IT 기술을 활용해 국내 전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고도화된 인공지능 엔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사내 독립기업(CIC)으로 조직 개편됐던 AI Lab이 분사한 회사다. 인공지능(AI), 검색 등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카카오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을 결합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을 지향한다. 조성준 기자 tziatio@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11일부터 지급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200만원 지급
매출 감소 일반업종도 1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하면서 내려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공고했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 수준이다.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사회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값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금액 200만 원·1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영업피해	100	100	100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	100	-
소계	300	200	100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5일 서울 홍대거리 한 가게에 휴업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된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일 경우 9~12월 매출액 연간 환산금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대비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

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사회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할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과 관련해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LG U+, 온라인 ‘CES 2021’ 임직원 600명 투입

“신사업 발굴 기회”… AR·VR, AI 등 벤처·스타트업 전시관 온라인 참관

LG유플러스가 이달 1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CES 2021’에 600여 명의 임직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CES 2021은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967년 첫 행사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참가 기업들은 영상으로 새로운 기술 및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온라인 미팅 형식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점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100여명을 포함한 600여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은 CES 기간 개최되는 다양한 키노트 스피치와 온라인 전시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CES 참관은 황현식 사장이 신년사



LG유플러스 직원이 CES 온라인 홈페이지 화면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에서 밝힌 ‘썬팬’을 확보하자는 전략의 일환이다. 황 사장은 임직원에게 글로벌 업체의 온라인 전시관을 꼼꼼히 살피고, 각종 세션과 키노트 스피치 등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전시관을 찾아 차세대 5

G 디바이스 분야 협력을 고민하고, 바라이즌·NTT 등 글로벌 통신 사업자의 전시관을 찾아 향후 협력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벤츠와 GM 등 자동차 업체는 물론, 레이다·라이다 등 센서 제작 업체의 전시관도 찾아 협력 기회를 찾는다. 신사업 분야는 글로벌 선도 업체에 더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전시관까지 해당 임원이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CES에 원격의료, 교통, AI, 5G,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신기술이 대거 소개될 예정인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인텔, AMD, 소니 등 기술 기업의 전시관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국천문연구원, NASA와 손잡고 세계 첫 ‘전천 우주망원경’ 만든다

102개 색깔로 전 우주관측… 2024년 발사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6일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및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과 공동개발하는 우주망원경 ‘SPHEREx’ 제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PHEREx는 ‘전천(全天) 적외선 영상분광 탐사’를 위한 우주망원경으로 전천 하늘에 대한 영상분광 탐사로는 세계 최초다. SPHEREx는 지상에서는 지구 대기에 의한 손실 때문에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 전천 관측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상분광 기술을 적용해 전 우주를 102개의 색깔로 관측할 수 있다. 영상분광 기술이란 넓은 영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영상관측(Imaging)’과 개별 천체의 파장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분광관측(Spectroscopy)’이 통합된 기술이다. SPHEREx에는 천문연이 차세대 소형 위성 1호의 과학탑재체 NISS에 최초로 적용한 선허분광 필터를 사용한다. SPHEREx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약 20억 개에 달하는 개별 천체들의 전천 분광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HEREx의 관측영상과 각 천체의 방출 스펙트럼을 재구



성하면 우주의 3차원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에 의한 우주생성 이론과 은하 형성 및 진화의 정보를 담은 적외선 우주배경복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가 된다. 또 우리 은하와 우주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분포 지도를 작성해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계 탐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HEREx는 2016년 천문연이 Caltech과의 국제공동연구기획을 바탕으로, 국제연구팀 공동으로 NASA에 개발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제작 완료된 SPHEREx는 2024년 태양동기궤도로 발사돼 약 2년 6개월 동안 4회 이상의 전천 분광 탐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과기부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 6곳 신규 선정

강원·경기·경북·세종·인천·전남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강원 강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할 광역지자체 신규 6곳과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1곳을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공모를 통해 ‘과학문화 지역거점’ 신규 운영 지자체로 강원, 경기, 경북, 세종, 인천, 전남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이들 센터는 기존에 운영 중인 4개 거점센터(경남, 충북, 대전, 부산)와 함께 지역 과학문화 정책수립, 다양한 과학문화 주제 발굴·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과학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과학문화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선정된 6개 과학문화 지역거점에서는 △과학기술문화

해설사 양성(강원) △미래 과학 커뮤니케이터 발굴 프로젝트 VR 세종 페임랩(세종) △글로벌 인재 양성 사이언스스타(경기) 등 지역 내 우수한 과학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 참여형 생활 속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인 △사이언스 러닝 파크(인천) △스마트 패이커 리빙랩(전남), 과학과 타 분야 융합 △역사와 과학의 융합, 과학문화 도슨트 프로그램(경북)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와 함께 추진되는 ‘올해의 과학문화도시’에는 지난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이어 강원도 강릉시가 선정됐다. 강릉시는 푸른 밤하늘과 바다를 활용한 해양·천문 과학문화 체험 캠프, 강릉시의 해양·바이오 자원과 서핑, 패러글라이딩 등 관광·레포츠 산업 자원을 연계한 ‘강릉 과학문화축제’ 등을 통해 과학문화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를 멈춰주세요



〈성공이나 부를 과시하는 문화〉

‘플렉스’가 키운 온라인 명품시장

명품 소비 큰손 떠오른 MZ세대, 온라인 채널 선호
작년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 1조5957억… 10.9%↑
‘에스아이빌리지’ 2030세대 구매 비중 62.5% 달해

판매 창구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만 제한하면서 ‘브랜드 레벨 유지=경쟁력’을 내세워온 명품업계에서 오랜 불문율이 깨지고 있다.

부를 과시하는 플렉스(Flex) 문화와 함께 명품 소비의 ‘큰손’으로 떠오른 MZ세대가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는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명품업계의 온라인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6일 시장조사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이커머스) 명품시장 규모는 1조5957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1조4370억 원)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15년(1조45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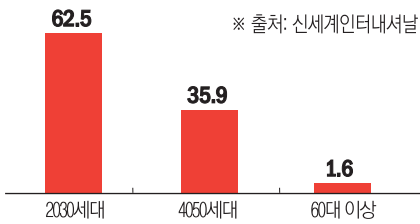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시장 규모가 커졌다.

온라인이 전체 명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온라인 명품 시장이 전체 명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이는 명품 구매자 10명 중 1명은 집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뜻이다.

온라인 명품 시장이 성장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 번째는 ‘MZ세대의 시장 유입’이 꼽힌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명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4~5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명품을 사온 30

신세계인터내셔널 에스아이빌리지
지난해 연령별 구매 비중 (단위: %)



※ 출처: 신세계인터내셔널

대 직장인 조 모 씨는 최근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온라인에서 160만 원에 구입했다. 조 씨는 “매장에서 260만 원 수준인 제품을 100만 원가량 싸게 산 것”이라며 “가품일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믿을만한 플랫폼에서 구매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엔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게 돼 굳이 비싼 백화점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덧붙혔다.

지난해 여름 구찌 핸드백을 구입한 고 모씨 역시 온라인을 통해 80만 원가량 싸게 구입했다. 고 씨는 “당시 패아닌 명품

대란이 일어나면서 백화점 매장에 줄이 길게 늘어섰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 서기가 싫었다”며 “매장과 온라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굳이 매장에 갈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2030세대의 명품 소비를 바탕으로 명품 플랫폼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트잇의 지난해 거래액과 거래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66%, 61% 늘었다.

특히 명품에 특화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자체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는 지난해 10월 말 이미 연간 매출 목표액(1000억 원)을 조기 달성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에스아이빌리지의 지난해 구매 고객 중 2030 비중(구매금액 기준)은 62.5%에 달한다. 이외에 G마켓과 옥션에서도 수입 명품 거래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 15% 증가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진 점도 명품의 온라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커머스 누적 거래액은 약 145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누계(135조 원)를 넘어선 수치다. 연말까지 추산할 경우 1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명품업계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까르띠에’와 ‘프라다’가 국내 공식 온라인몰을 연데 이어 구찌·루이비통과 함께 3대 명품으로 꼽히는 ‘에르메스’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다. 구찌와 샤넬 역시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가방과 신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 오프라인 채널이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온라인 판매로 인한 이미지 훼손보다 수익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내 방에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 열린다

롯데百貨, BTS 테마 상품 판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 24일까지 8주간 공식 라이브 방송 채널 100LIVE를 통해 ‘BTS POP-UP : SPACE OF BTS’ 공식 상품을 라이브 방송에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코로나19로 매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기획됐다. 방송에서는 매주 다른 팝업스토어 인기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으로 각 방송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테마로 진행된다.

6일 첫 방송에서는 실용적인 문구류로 구성된 신학기 세트(노트, 홀더, 스티커, 마우스패드, 그라데이션펜) 2만6000원~2만8000원, 홈라빙 세트(리그, 룸수즈, 수면양말) 5만7000원, 액세서리 세트(목걸이, 귀걸이) 7만8000원, 트레이닝복 세트



올해의 컬러로 주방 꾸며볼까

롯데백화점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올해의 컬러인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미트 그레이’ 컬러로 구성된 다양한 주방 아이템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매년 올해의 컬러를 발표하는 색채전문기업 팬톤은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색으로 변치 않는 견고함을 뜻하는 그레이(얼티미트 그레이)와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옐로(일루미네이팅)를 선정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영양제보다 생필품”… 새해 소비패턴 달라졌네

11번가 냉동식품 판매량 100%↑

홍삼·어린이도서 20%대 그쳐

건강·공부 ‘결심상품’ 판매 부진

해돋이, 타종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예년보다 새해 분위기가 덜했던 올해 유통가는 신년 결심 상품보다 생필품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11번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동안 매출을 전년 동기간(2019년 12월 29일~2020년 1월 3일)과 비교했을 때 냉장 및 냉동 식품 판매량은 100% 신장하고, 탄산음료는 110%, 즉석밥은 80% 치솟는 등 소비자들 생필품을 주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지라면(51%)과 냄비(61%), 후라이팬(47%), 즉석요리(44%) 인기도 높았다.

이에 반해 연말과 연초에 주로 팔리는 홍삼(29%)과 비타민(30%), 영양제(32%)의 인기는 이보다 적었다. 건강·분말이 71% 늘어난 것이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컸다. 새해 결심상품의

11번가 매출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생필품	새해결심상품
냉장·냉동식품	100
탄산음료	110
즉석밥	80
봉지면	51
홍삼	29
비타민	30
어린이도서	20
다이어리	19

※ 출처: 11번가

※ 기간: 2020년12월 28일~2021년 1월 3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서 판매 역시 생필품에 비해 저조하다. 어린이도서 매출은 20% 늘었고, 중고등참고서는 35%, 자기관리 도서는 29%, 다이어리는 19% 올랐다.

G마켓의 최근 한달(2020년 12월 5일~2021년 1월 3일) 판매량을 전년 동기과 비교할 때도 냉동·간편조리식품은 42%, 라면은 30%, 생수는 23% 치솟았지만, 영양제 전체 판매량은 16%에 그쳤다. 새해결심상품으로는 그나마 토익과 토플, 텀스 교재가 25% 잘 팔렸고, 자격증 교재도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필기용품은 24%로 집계됐고, 금연보조제는 아예 -13%로 뒷걸음질쳤다.

이마트24의 올해 1월 1일부터 3일간

지 채소 및 조미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고, 가정간편식(HMR)도 71% 치솟았다. 소주(98%)와 맥주(81%), 민속주(85%) 등 주류 매출도 상승했고, 홈파티가 인기를 얻으며 흰우유와 탄산음료 등 대용량 음료 매출도 68% 상승했다.

아울러 봉지면과 즉석밥 등 생활 먹거리도 각각 49%, 43% 뛰었고, 주방·육식용품은 72%, 세제류는 51%, 멀티슈·키친타올은 45%로 생필품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세자릿수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던 필기구를 비롯해 금연 보조 상품인 캔디와 껌 등 새해 결심 상품 매출은 올해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상 연말과 연초에는 새해 결심 상품이라고 불리는 자격증이나 다이어트, 건강 관련 상품들이 많이 팔리지만 이번에는 생필품 판매가 높았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며 새해라는 특수성보다는 연휴라는 인식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개봉 전 ‘미니언즈2’ 젤리 GS25서 먼저 먹어볼까

아직 개봉 전인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2’의 캐릭터를 GS25에서 만날 수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사 유니버설스튜디오(이하 유니버설)와 손잡고 지난달 △미니언즈과일젤리 △트롤과일젤리 △슈라기 공룡화석초콜릿을 연이어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미니언즈과일젤리와 트롤과일젤리는 지난해 2월부터 GS25와 유니버설이 10개월 간의 긴 협의 과정을 거쳐 출시한 상품이다. 한국의 GS25가 미국의 유니버설과 상품 기획을 담당했고, 독일의 유명 제조사 라골즈(Ragolds)는 생산을 맡으며 한·미·독 3개국의 합작 상품이 태어났다.

GS25의 해외소싱팀은 생산 설비의 위생과 규모 등 엄격한 수준의 시설 조건을 요구하기로 유명한 유니버설로부터 이미 검증이 완료된 독일의 제조사 라골즈를 추천 받아 전략적 제휴 상품의 생산 위탁을 맡겼다. 남주현 기자 jooh@

美 스니커즈 ‘케즈’ 상륙 휠라, 국내 판권 따냈다

105년 전통의 미국 스니커즈 원조 브랜드 케즈(Keds)가 국내에 상륙한다.

휠라코리아는 케즈의 한국 판권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단독 매장을 오픈한다고 6일 밝혔다.

휠라코리아는 지난해 미국 미시건주 소재 케즈 본사인 ‘올버린 월드와이드’로부터 케즈(Keds)와 서브 브랜드인 프로 케즈(PRO-Keds)에 대한 한국 시장 내 유통 및 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케즈와 프로 케즈 브랜드의 신발, 의류와 액세서리에 국내에 선보이게 됐다.

케즈는 1916년 미국에서 탄생한 스니커즈 브랜드다.

그동안 케즈는 국내 편집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브랜드였으나 휠라가 케즈 매장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 매장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에서 판매하는 케즈 제품 중 대부분은 휠라코리아가 자체 기획, 생산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12만8000원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10억 뷰가 넘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Feat. Halsey)’를 테마곡으로 준비했다.

방송에서 선보이는 상품은 방송 시작 후 24시간 동안 구매 가능하다. 3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1·5만 원 이상 구매 시 ‘시티 시그니처’ 엽서/스티커를 증정하고, 라이브 방송 중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 또는 뮤직비디오 관련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정답을 맞춘 고객 5명을 추첨해 BTS 티케이즈 초콜릿과 로고 쿠키 세트를 증정한다.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는 롯데백화점 본점, 광복점, 대구점, 광주점에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매장 내 쇼핑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발빠른 ‘서학개미’…비트코인 수혜株 부지런히 담았다

비트코인이 한때 3800만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 광풍’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주 투자 열기도 뜨겁다. 투자자들은 지난 2017년 경험에 비추어 직접 투자보다는 보다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서학개미는 국내개미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는 11월부터 반등세를 보였지만 미국 비트코인 관련주는 8월부터 반등, 서학개미들이 대거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내투자자는 엔비디아(NVIDIA CORP) 주식을 6억181만 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위터의 잭도시가 CEO(최고경영자)를 겸하고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 기업 스퀘어(SQUARE INC)도 8099만 달러를 사모았다. 해당기간 쿠팡이나 니콜라, 인텔보다 높은 순매수세다. AMD

‘엔비디아’ 6억181만 달러

‘스퀘어’ 8099만 달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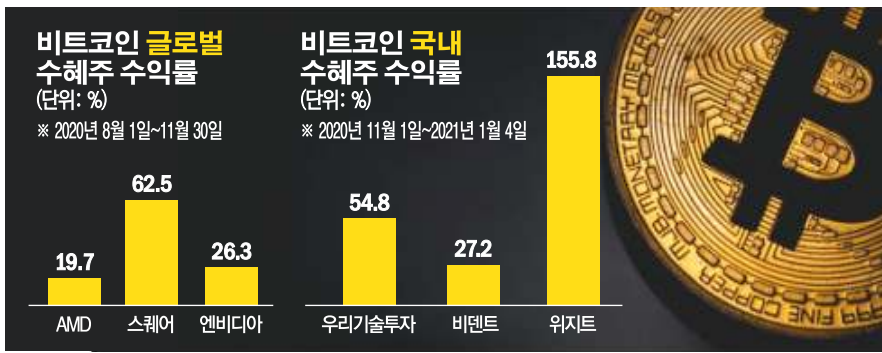
지난해 8월부터 대거 순매수

주가 급등 쏠쏠한 수익 ‘방긋’

(ADVANCED MICRO DEVICES INC) 역시 6451만 달러를 사들여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비트코인 수혜주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8월부터 12월까지 150% 이상 상승하는 등 주식, 금 등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해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수혜주가 덩달아 주목받은 이유다.

서학개미는 8월부터 비트코인 수혜주를 빠르게 사모았다. 엔비디아와 AMD는 가



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처리 장치(GPU)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열풍 때도 주목받은 바 있다. 또 스퀘어는 전체 자산의 약 1%에 달하는 5000만 달러(약 540억 원)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해 수혜주로 분류됐다. 또 페이팔과 함께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비트

코인의 폭발장을 겪은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보다는 관련 수혜주를 대거 사모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거에도 가상화폐 수혜주는 가상화폐 가격과 함께 상승했고,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해당 종목들은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스퀘어는 62.5%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26.3%, AMD는 19.7% 올랐다.

다만, 12월 들어 서학개미는 해당 주식의 순매수 규모를 줄였다. 엔비디아는 5400만 달러 순매수도 전환했고, AMD는 27만 달러를 순매수하는데 그쳤다. 스퀘어는 12월에도 2948만 달러 순매수세를 보였지만 순매수 규모는 11월(3088만 달러)에 비해 다소 줄었다.

한편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지트는 11월 이후 지난 4일까지 주가가 155.8% 올랐고,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는 54.8% 상승했다. 빙썸코리아와 빙썸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텐트 역시 27.2% 상승했다.

손엄지 기자 eom@

KSS해운도 포기?… 흥아해운 새 주인 찾기 ‘난항’

STX컨소시엄 인수 의사 철회 이어 KSS해운도 “인수 여부 내부 논의” 흥아해운 “타업종 기업과 협의 중 이르면 이번주 중 윤곽 드러날 것”

흥아해운의 인수합병(M&A) 작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STX컨소시엄이 흥아해운 인수 의사를 철회한 후 KSS해운마저 받을 뻔지 검토에 들어갔다.

6일 흥아해운 관계자는 “인수 후보자를 KSS해운을 포함해서 동종업계가 아닌 인수자까지 물색 중”이라며 “이번 주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은 새로운 주인 찾기는 지난 2019년에 시작했다. 종합 물류사 카리스 국보가 흥아해운을 인수하려다 최종적으로 잔금 105억 원을 납입하지 않아 일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우협)으로 선정됐던 STX컨소시엄이 12월 매각 마무리를 위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앞두고 돌연 인수 본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두 번째 새로운 주인 찾기도 불발됐다.



원매자를 찾지 못해 청산절차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채권단이 흥아해운 워크아웃 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21일에서 올해 1월 21일로 약 한 달간 연장하면서 마지막 매각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흥아해운의 매각 작업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KSS해운이 장고 중이다. KSS해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실제로 인수할지 포기할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흥아해운 M&A 거래에서 우협이었던 STX컨소시엄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였던 KSS해운의 인수자격 법률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매각 주관사는 EY한영회계법인이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매각 주각사는 EY한영”이라며 “실질적인 투자유치나 매각 결정은 흥아해운으로 산은 지분도 없고 단순 채권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KSS해운으로의 매각 여부를 불투명하게 본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STX컨소시엄이 우협으로 선정된 이후 흥아해운의 알짜 계열사인 PK밸브의 경영권과 지분(37.37%)을 넘겨받고 인수 본계약이 깨진 상황”이라면서 “알짜 계열사가 빠진 상태에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흥아해운 관계자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KSS해운을 포함해 동종업계가 아닌 타업종 기업과도 협의 중”이라며 “인수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김나은 기자 better68@·곽진산 기자 jinsan@

“제2 감마누 될라”…거래소, 정리매매 결정 ‘신중모드’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여파 감마누 소액주주들과 손배소

한국거래소가 ‘제2의 감마누’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이후 소액주주와 법정 다툼을 벌이며, 정리매매 진행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 자료 행남사, 해덕파워웨이 등에 대해 상장폐지로 결론 내고, 정리매매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에스케이케이에 대해 정리매매 개시를 결정했다.

세 회사 모두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져본 신청을 신청했다. 통상 정리매매로 거래정지가 풀린 기업들은 즉시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져본을 신

청해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곤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6일 “감마누 거래재개 이후 거래소에서 정리매매 결정을 주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적정의견을 받기 위한 재감사보고서 제출, 상장폐지 개시기간도 예전과 달리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거 감마누 측은 정리매매 당시 거래소의 무리한 상장폐지 결정, 정리매매 강행 등 재량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추가 시간을 요청받아 거래소에 전달했는데, 해당 의견이 누락돼 정리매매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만약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정리매매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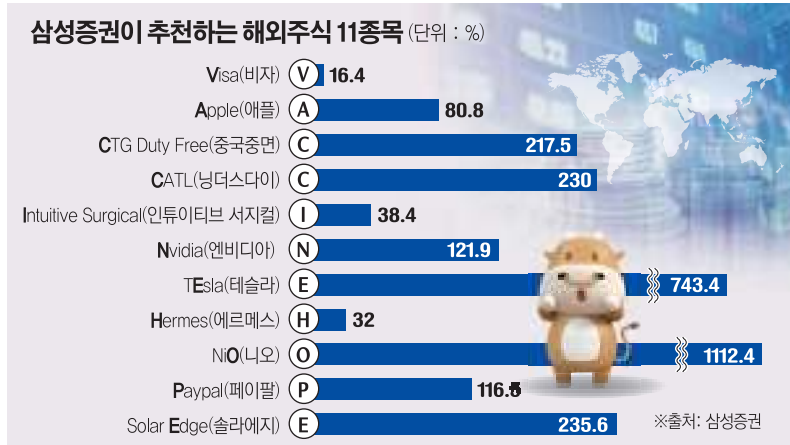
이에 거래소 측은 감마누 거래재개 이후 바뀐 검토 절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마누 이후 추가 검토 단

계가 생기진 않았다”며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제때 자료를 내지 못하다 보니 이를 위한 기한 연장은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공식적인 검토가 아니더라도 2019년 개정된 상장폐지 제도를 바탕으로 제2의 감마누 사례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금융위는 감사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1년간 구제 기간을 받은 후 다음 해에도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에 이르는 셈이다. 감마누는 제도개선 이전 규정을 적용받아 정리매매로 이어졌다.

한편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위원회 논의를 거친 정당한 절차로, 고의적 과실이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이인아 기자 ljh@



삼성증권, 올 주목할 만한 해외주식 키워드

‘V·A·C·C·I·N·E’ & ‘H·O·P·E’

삼성증권이 올해 주목할만한 해외주식 키워드로 ‘V·A·C·C·I·N·E’와 ‘H·O·P·E’를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V·A·C·C·I·N·E’와 ‘H·O·P·E’는 올해 해외증지에서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11개 글로벌 추천 종목들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키워드다.

(V)isa(비자), (A)pple(애플), (C)TG Duty Free(중국중면), (C)ATL(닝더스다이), (I)ntuitive Surgical(인튜이티브 서지컬), (N)vidia(엔비디아), T(E)sla(테슬라)와 (H)ermes(에르메스), Ni(O)(니오), (P)aypal(페이팔), Solar(E)dge(솔라에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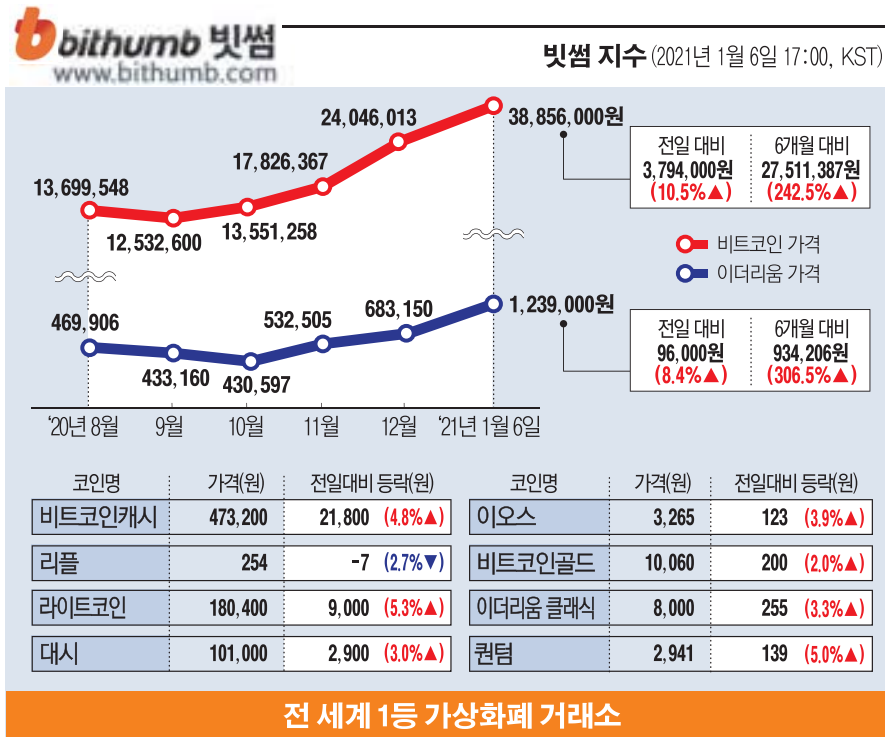
삼성증권이 신축년 추천종목으로 꼽은 글로벌 주식 11종목은 G2(미·

중)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중국 기업 위주라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업들의 경우 작년 평균 주가 상승률이 268%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 종목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불안한 유동성 장세에서 부각될 수 있는 차별화된 스토리를 지닌 기업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효선삼성증권글로벌주식팀장은 “코로나19로 ‘K자 회복’ 전망이 대두되는 가운데 혁신과 브랜드를 앞세운 기업들의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끝없이 변신하며 시장 주도권을 잡아가는 ‘트랜스포머’ 같은 주식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변창흠표 주택공급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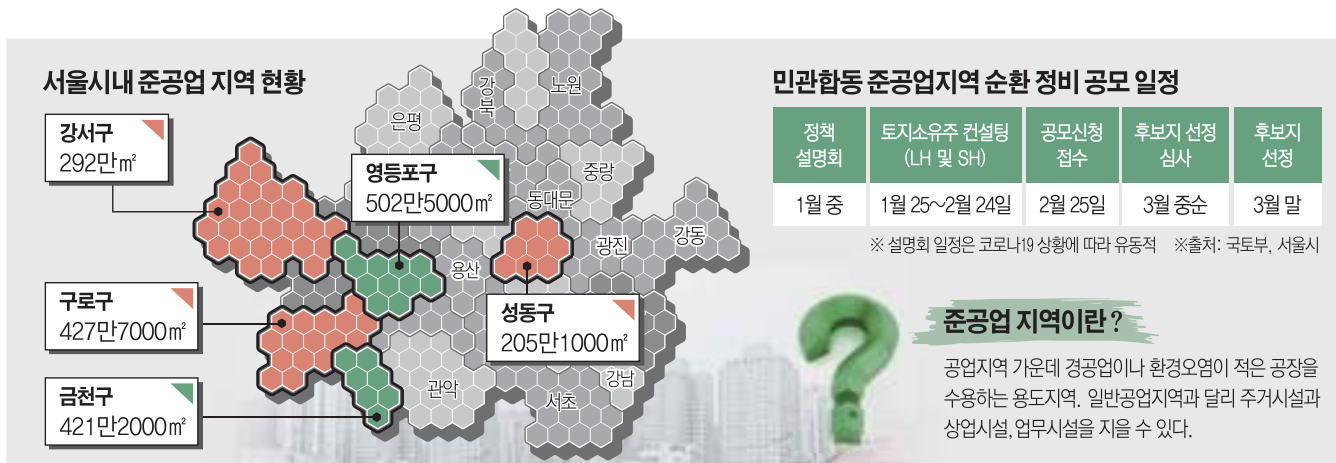
땀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은 '물음표'

오늘부터 공모...이르면 3월 선정
시범지역 3~4곳 7000가구 공급
주택비율 높이고 사업비 인센티브
수도권외 제도적 기반 부실 '한계'

‘변창흠표’ 주택 공급 정책 중 하나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이 7일부터 본격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3월 말 서울 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모두 새해 들어 “충분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언한 만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시범사업지 선정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준공업지역은 변 장관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밀개발 후보지로 꼽은 곳이다.

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 50% 이상)다. 순환정비사업은



앵커시설(핵심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주변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토지주택공사(SH)도 사업에 참여한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한다. LH와 SH는 사업 참여 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그 대신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비율을 높일 법적 근거도 마련

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이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50%에서 60%로 늘어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지 3~4곳에 2022년까지 최대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 참여 부지는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발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자치구 관계자와 토지주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사전 참여의 형서를 제출한 토지주는 별도 서면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은 정부의 서울 내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서울 내 대부분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와 성동구, 금천구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해 개발 이후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서울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내 주요 준공업지역은 약 2000만㎡ 규모로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500

만㎡로 가장 넓다. 구로구(427만㎡)와 금천구(412만㎡), 강서구(292만㎡), 성동구(205만㎡)도 준공업지역이 많은 자치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부가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사업 흥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 내 주택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개발이익 사회 환원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흥행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자칫 서울 내 시범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준공업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만 제한적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 준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남겨진 토지(이전적지) 개발 관련 규정이 있는 곳 역시 서울과 인천시뿐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툴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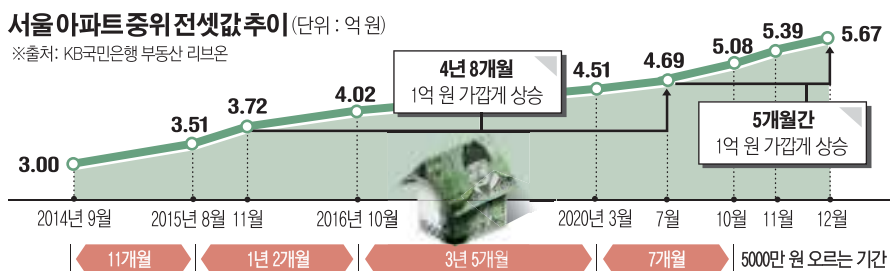
※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 (근태관리, CRM, PMS, 경비창구, 웹발도,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임대차법 5개월 만에...중위 전셋값 1억 ‘쑥’

송파·금천·은평구 20% 넘게 상승
물량 줄고 보증금 한꺼번에 올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 원 가깝게 뛴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는 법 시행 직전 약 5년 동안 오른 전셋값과 맞먹는다.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 원으로, 전달(5억3909만 원)보다 5.2% (2792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 달 5억6702만 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 원 올랐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하다. 2015년 11월 3억721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4억6931만 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 원 올랐다.

중위 전셋값 상승 속도는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눈에 띄게 빨라졌다. 작년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 앉는 세입자가 늘어나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5개월 사이 3.3㎡(1평)당 평균 298만5000원 올랐다. 전용 85.3㎡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가 5개월 사이 21.2%(1억222만 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가 20.6% (6712만 원), 은평구가 20.4% (7450만 원)로 20% 넘게 상승 등 서울 평균(15.8%) 이상으로 올랐다. 문선영 기자 moon@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주택통계’에 만점?

유경준 의원 “통계청, 부동산원 부실통계 알면서도 높은 점수 줘”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작 통계품질진단에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통계청장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사 표본이 작아 상대 표본 오차가 크고, 주간 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되는 등 현

실성이 부족하고,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 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줬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타 부처(국토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청렴도 꼴찌’ 카이스트, 이번엔 총장 선출 비방전

유력후보 ‘中에 기술유출’ 논란
카이스트 “경쟁 후보측서 음해
교수협서 검증 끝난 사안” 진화

과학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국내 대표 특수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흑색 비방전 이 난무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6일 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후보 3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한창인 가운데 이들 후보 중 한 명이 지난해 카이스트에서 논란이 된 ‘자

율주행 기술 중국 유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기술 유출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A 교수가 총장 후보가 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사건의 발단은 카이스트 이 모 교수가 중국의 ‘천인계획’에 포섭된 것에서 시작된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라이다’ 기술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 모 교수는 2017년 중국 충칭의 한 대학으로부터 매년 3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 문제가 돼 결국 검찰이 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해 이 교수를 구속기도 했다.

카이스트는 이 모 교수의 범행을 몰랐다는 태도나 실제로는 이 모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 참여한 총장 후보 A 교수가 천인계획 참여 프로젝트 이름을 라이다가 아닌 ‘라이파이’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뜻을 밝혔다. 경쟁 후보 측에서 상대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음치임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앞서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걸려 들어갔을 것”이라며 “교수협의회에서도 이미 검증이 끝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후보 추천이 이뤄졌고 전체 교수 투표에서도 과반이 넘는 1위를 한 강력한 후보이다 보

니 음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최근 수년째 청렴도 평가에서 밀바닥에 머물고 있어 쇠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4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카이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체육대학교 등과 함께 종합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에 그쳐 전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2018년에는 4등급으로 2017년 대비 한 계단 올라섰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에 그친다. 카이스트는 세부 평가 항목 중 ‘연구’와 ‘조직문화제도’에서 5등급에 머물러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낮은

평가가 계속됐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과학계에서는 연구비가 많은 대학일수록 청렴도가 떨어지는 편으로, 아무래도 진행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특히 교수와 학생 간 도제식으로 연구하다 보니 학생들이 대부분 교원에게 불만이 큰 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이스트를 비롯한 4개 과기원은 청렴도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올해부터 자체 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레깅스 몰카도 성범죄”

“일상복” 무죄 원심 뒤집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범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 앞에서 있는 B 씨의 하반신을 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다소 험령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었다. 그러나 레깅스 특성상 하체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났다.

1심은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법률상 ‘성적 욕망 또

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장소, 상황, 촬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는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레고켄바이오, 등록상표 “레고와 유사”

상표권 분쟁 1심 패소

국내 제약사 레고켄바이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재정 부장판사)는 레고 주식(LEGO Juris A/S)가 레고켄바이오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레고켄바이오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지정상품은 약제용 시럽과 캡슐, 남성호르몬제 등이다.

레고는 2018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상표는 자신들의 선등록상표인 ‘LEGO’, ‘레고’와 유사해 식별력과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레고켄바이오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지정상품 사이의 경제적 관련성이 없다며 레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레고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완구류’에 해당하는데, 레고켄바이오의 상표는 약제류에 사용돼 레고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실추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 레고가 글로벌 완구업체 중 상품 매출액 1위를 기록했고, 다수의 영여사전과 백과사전에 자세히 소개되는 점 등을 근거로 레고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한 것이다.

레고켄바이오는 자신들의 상표가 ‘레고 켄파마’, ‘레고켄’으로 호칭될 뿐 ‘레고’로 약칭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레고켄바이오의 상표를 보고 의약회사라는 관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레고’라고 보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배제 또는 압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레고켄바이오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종용 기자 deep@

“정인이 보호 못해 깊이 사죄” 고개 숙인 경찰청장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여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김 청장은 6일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쇠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책임 소재도 확실히 했다. 김 청장은 “양천경찰서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담당 관계자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달 2일 한 방송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기영 기자 pgy@

하이브리드車 납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맑은서울 스티커’ 없어도 적용
DPF 부착 경유차 감면은 폐지

앞으로 전국의 모든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납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와 감면대상을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전국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 해

택을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만 혼잡통행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차량 등록지, 스티커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부칙을 통해 개정 조례 공포 이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

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일부 정비를 기반으로 교통과 환경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르는 ‘피페이트’(Feebate) 개념의 녹색혼잡통행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납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납산 1·3호 터널과 2019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 ‘녹색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IPX7 완전방수 시스템
1미터 이하 수심에서 30분간 완전방수
완벽한 습/건식 면도지원+편리한 세척



미국 국방성 인정!

MIL-STD
★
810G

미국 밀리터리 스탠다드 테스트 (MIL-STD 810G) 통과!

밀리터리 스탠다드 테스트란? 미군납규격 허가로 고온, 저온, 침수, 강우, 진동, 충격, 결빙 등 총 15가지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시험을 통해 제품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진짜 남자 면도기!

밀리터리 셰이버 SERIES 6 (IKS-6100)

미국 국방성 인정 극강의 내구성! 시선 강탈 밀리터리 디자인! 건/습식 면도 완벽지원 IPX7 완전방수!
정교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터프한 셰이빙 퍼포먼스를 느껴보세요.



4중 커팅 블레이드
독립 4중 면도날이 피부 굴곡을 따라 완전 밀착 셰이빙



액티브 캐치 트리머
놓치는 수염이 없도록 누워있는 수염을 잡아세워 면도



60도 예각 에칭 블레이드
내구성과 절삭력을 모두 갖춘 최적의 면도날 각도



하드 캡 커버
단단한 하드캡 커버로 이동시에도 안전



항군 고무 그립
젖은 손으로 사용시 그립감 향상과 미끄러짐 방지

RSV(리저브) 기능
최초 방전시 다시 전원을 켜면 약 3분간 사용가능

점점 방식 충전 거치대
코드선을 끼울 필요 없이 가볍게 충전기에 올려 충전

전용 건조대
습식 사용, 세척 후 간편하게 거치 보관



500명 선착순 증정!

진짜 남자를 위한 특별 사은품

이즈미 밀리터리 셰이버 (IKS-6100) 구매고객께
이즈미 코털제거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NB-12B / 선착순 500명)

소비자권장가 **23,900원**



※위 행사는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 IKS-6100 ●안전인증번호 : XU101315-18004 ●적합등록번호 : • 본체 R-R-IZU-IKS-6050 • 충전기 MSIP-REI-IZU-RC-14K ●면도방식 : 왕복식 4날 시스템 ●사용전원 : 충전식
●정격전압 : 전 세계 공용 전압 AC100~240V ●정격주파수 : 50~60Hz ●소비전력 : 7W ●충전시간 : 2시간 ●사용시간 : 약 84분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Li-ion) 1500mAh ●사이즈 : 61X45X156(mm) ●중량 : 186g

밀리터리 셰이버 (IKS-6100) ~~219,000원~~ ▶ **198,000원** (카드 3개월 무이자) | 온라인주문 **아람비스토어** | 주문전화 **080-607-7700**

방학 반납하고 선별진료소로 달려간 보건교사들

의료법상 의료인 ... 전국적으로 150여명 무보수로 자원봉사
학기 중에도 학생 발열 확인·유증상자 격리 방역업무 도맡아
강혜원 배화여중 교사 “모두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민간 의료진이 투입되고, 군 의료진도 투입됐는데 여전히 선별진료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한다. 우리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의료인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배화여중의 강혜원(33·여) 보건교사는 겨울방학 중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나간다. 그는 “학기 중에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 외부활동이 제한됐는데, 방학 때 그나마 여유가 생기니 짧은 기간이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배 교사처럼 겨울방학을 활용해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나가는 보건교사는 전국적으로 150명이 넘는다. 이 중 137명이 5일부터 전국 선별

진료소 등에 투입돼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보건교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자원봉사를 지원했고,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9명, 영남권에서 29명, 호남권에서 5명, 충청권에서 19명, 제주권에서 5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한다.

기존에도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민간 의사 1200여 명을 모집해 지난달 17일부터 의료기관에 총 66차례 인력을 지원했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유휴 간호사 등 5300여 명을 모집해 765명을 현장에 지원했다. 그럼에도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 등에 따른 진단검사 확대를 선별진료소의 인력난은 여전하다. 이주



4일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소의 확대를 검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겨울방학을 맞은 보건교사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자원봉사에 나서 코로나19 방역전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뉴시스

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한파는 근무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방학을 반납한 보건교사들의 지원은 단기적으로나마 방역활동에 큰 힘이 된다.

특히 보건교사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이들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고,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도 2주 내외로 줄었는데, 이마저 휴식 대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반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학기 중 근무강도가 낮았던 것도 아니다. 보건교사들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확인과 학생 발열확인, 유증상자 격리 및 선별진료소 안내를 도맡았다. 강 교사의 학교도 학부모와 외부 출입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던 때가 있었다. 강 교사는 “교사 중 일부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고, 그것도 우리가 관리했다”며 “업무량이 늘

어나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사가 방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고생했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28일부터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 그는 “2월에도 보건교사회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모집하면 지원해 설 연휴 전후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며 “학교 입장에서도 보건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학교 방역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과 보건교사들의 지원 취지를 고려해 많은 학교에서 흔쾌히 자원봉사를 허락해줬다”고 설명했다.

느닷없이 보상도 없이 선별진료소에 나간다고 하니 주변의 걱정도 많다. 서울에는 3년 만에, 제주에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다.

강 교사는 “가족들도 날씨도 춥고 일도 힘든데 관찰됐나고 걱정한다”며 “하지만 기존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던 의료진들에게 그게 일상이었다. 우리가 방학 동안 며칠씩 나가는 건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특별히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손흥민 유럽무대 통산 150호 골
브렌트포드전 추가골...리그컵 결승행

‘슈퍼 쏘니’ 손흥민(사진)이 골을 터뜨린 토트넘 홋스퍼가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의 브렌트포드를 꺾고 ‘2020-2021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결승에 진출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카라바오컵’ 브렌트포드와의 준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후반 25분 추가골을 기록했다. 시즌 16호.

또한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유럽무대 진출 후 개인통산 150호 골을 올렸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20골)에서 유럽무대에 데뷔한 손흥민은 바이어 레버쿠젠(29골), 토트넘(101골)까지 419경기 만에 150골을 기록하게 됐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미국 첫 한국계 연방검사장 갑작스런 사임, 왜

조지아주 북부지역 박병진 검사장...9살 때 美 이주, 3선 하원의원 출신
전날 트럼프 발인 녹취록 “‘네버 트럼퍼’ 연방검사 있다” 보도 후 물러나

상원의원 결선투표가 진행 중인 조지아주에서 한국계 연방검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부정선거 주장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그가 물러나자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지 언론인 AJC에 따르면 박병진(미국명 B.Jay Pak·사진) 조지아 북부지역 연방검사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검사장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다”며 “사려 깊고 일관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토크포인트메모(TPM)는 박 연방검사장이 전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사임 원인이라고 전한 메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재직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물러났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브래드 래펜스퍼가 조지아주 국무장관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된 다음 날 그가 사임했다는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반대하는(네버 트럼퍼·Never-Trumper) 연방검사가 있



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통령은 폴턴카운티와 애틀랜타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목했는데 이곳은 박 검사장의 담당 지역이다.

9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박 검사장은 일리노이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검사와 소송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2011년부터는 세 차례 조지아주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17년 10월부터 연방검사장을 맡았다. 한국계 연방검사장은 그가 최초였다. 그는 조지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촉망받는 인물이었다.

최혜림 기자 rog@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
APEC 과기혁신파트너십 부의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부의장에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장이 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APEC PPSTI는 아태지역 내에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논의하고, 회원국 간 과학기술협력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체다. 박환일 박사는 앞으로 2년 동안 부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 박사는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농업응용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녹색기술센터,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글로벌 혁신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김정수 포스코 O&M 사장 취임

부동산 운영·관리 기업인 포스코 O&M은 김정수 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이 4일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사장은 포스코에서 포스코 말레이시아 법인장과 선재마케팅실장 등을 지냈다.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수료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BNP파리바카디프, 최영화 부사장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신임 부사장에 최영화 전 신한은행 강동본부 부부장을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최영화 부사장은 신한은행 개인고객부를 거쳐 신한본부 부부장, 강동본부 부부장을 역임했다. 객잔산 기자 jinsan@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구형재 △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정삼 △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 이창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소득과약팀장 권동철 △국세통계담당관실 김형철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법인세과) 이병오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통계담당관실 이병주 △비상안전담당관실 김영주 △빅데이터센터 이기각 △국세정보데이터센터 조현선 △정보화1담당관실 김효진 △정보화1담당관실 김동운 △감찰담당관실 권경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성훈 △심사1담당관실 조미희 △심사2담당관실 손창호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지우 △징세과 장은수 △징세과 윤상봉 △법령해석과 문병갑 △소득세과 박해근 △소득세과 김석우 △법인세과 유민희 △공익중소법인지원팀(법인세과) 김지연 △공익중소법인지원팀(법인세과) 원정재 △공익중소법인지원팀(법인세과) 박운영 △공익중소

법인지원팀(법인세과) 문한별 △원천세과 전정영 △원천세과 표삼미 △소비세과 서승희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자본거래관 리과 김희대 △조사기획과 황민호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김형준 △국제조사과 김일도 △조사분석과 이우진 △장려세제신청과 이송철 △운영지원과 김주식 △국세청 이한솔 △전산사무관 전보 △전산기획담당관실 양동훈 △정보화1담당관실 김경선 △정보화1담당관실 장원식 △정보화2담당관실 김희재 △정보화3담당관실 강지원 △정보화3담당관실 강기석 △정보보호팀 성승용 △세원정보과 정동재

◆서울시 ◇3급 이상 △지역발전본부장 김상한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서노원 △안전총괄관 박종수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납북협력추진단장 김진만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정상훈 △복지기획관 이해우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이해경 △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김진팔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서울대공원장 이수연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김태명 △안전감사담당 겸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선섭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차차구 전출(부구청

장 요원) △중구 마채숙 △성동구 유보화 △중랑구 김태희 △동작구 배형우

◆주목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최병태 △주목도시금융연구원장 김기태 △개인보증처장 박종윤 △금융심사처장 이호철 △서울북부지사장 노찬현 △경기북부지사 개설준비위원장 이규택 △대구경북지사장 김선웅 △전북지사장 지형진 △서울동부관리센터장 신종화 △영남관리센터장 임공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장(겸직) 이영록 △등록임차팀장 김근태 △조정감정팀장 한 호 △경영지원팀장 현영민 △기획홍보팀장 정재우 △건립추진팀장 김남철 △심의조사통계팀장 임기현 △국제협력팀장 최성배 △저작권기술팀장 김상진 △교육기획팀장 김정목 △교육운영팀장 안성섭 △감사팀장 김태영

◆에스넷그룹 <에스넷시스템> △부사장 김형우 △전무 최동수 △상무부 김창규 <굿어스> △상무부 유일영 <굿어스테이타> △부사장 이진철

◆데일리한국 △수석부국장 겸 금융부장 문병언 △소비자생활부장 정은미

◆오피니언타임스 △부회장 안홍진 △대표이사 박종국

부음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 씨 별세, 조정숙(전 은평초등학교 교사) 씨 배우자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병규(사업)·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씨 부친상, 김수란·박진선·정계선(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 시부상 = 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02-3410-6915

▲전해자 씨 별세,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한옥(삼성카드 소속)·한경(스포츠투데이 부대표) 씨 모친상 = 6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 17호실, 발인 8일 오전, 02-2227-7590

▲김중수 씨 별세, 안영순 씨 남편상, 김정호(울산원에능협 공판소장)·인수(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미정 씨 부친상, 차정영·윤정인 씨 시부상, 송준호 씨 장인상 = 6일, 울산 영락원 2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52-272-1111

자본시장 속으로



박 동 흠
회계사

투자자들은 기업의 펀더멘털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세와 이익률 등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추가로 산업 환경과 기업의 여러 질적 정보를 조합해서 성장성을 판단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PER 같은 지표는 투자를 위한 보조지표로만 활용하고 회사 전체를 보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공부 방향이 될 것이다.

PER가 절대지표는 아니다

(주가수익비율)

주가수익비율 PER(Price Earning Ratio)는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즉 PER는 주가가 주당이익 대비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1주당 1000원 버는 기업의 주가가 만 원이라면 PER는 10배가 된다. 시간가치를 무시하고 성장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기업의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100% 인수했을 때 앞으로 10년 이면 본전을 모두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이 다음 연도에 두 배로 성장한다면 주당이익이 2000원이 되므로 PER는 5배가 돼 회수 속도가 빨라진다.

PER의 공식을 거꾸로 하면 기업의 주당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것인데 이것은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즉 1주당 1000원 버는 기업을 1만 원에 샀다는 것은 내가 이 기업에 대하여 10%의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은 PER가 100배 이상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PER가 100배이므로 기대수익률은 1%가 된다. 기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이렇게 낮는데 왜 비싼 주식을 살까? 당연히 그 기업의 순이익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내년도에 2배 성장하면 기대수익률은 2%가 되고, 매년 2배씩 성장한다면 복리효과로 인해 3년 뒤에는 8%로 올라가고 6년 이내에 투자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로 PER가 10배인 기업인데 지금보다 실적이 더 작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투자자의 회수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지금 주가가 1만 원이고 작년까지 1주당 1000원씩 벌었는데 앞으로는 500원, 300원, 적자 이렇게 될 것이라면 지금 PER가 10배라고 해도 원금 회수까지는 요원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과거의 손익보다는 미래의 실적 기대감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이 추천한 기업의 예상 실적치를 주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더 안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표현한다. 2020년 회계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기업들이 줄지어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매년 그랬듯이 D+5영업일이 되는 1월 8일에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잠정치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증시 흐름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큰 기업들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편인 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예상 손익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서 기업의 IR(Investor Relation)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예도 있지만,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내용치로 최근 4분기 손익이나 최근 분기 순이익을 연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정치를 내보곤 한다. 가장 마지막에 공시된 3분기 순이익에 4를 곱하고 3으로 나누면 연 환산이 가능하다. 만약 계절적 요인이 있는 기업이라면 가중치를 더 주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겨울 패딩으로 유명한 의류 기업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을 벌어들이므로 가중치를 조금 더 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 여름 가전제품

이나 빙과류를 주로 판매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4분기가 비수기이므로 가중치를 줄일 필요가 있다.

PER를 계산할 때 쓰고 있는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순이익이 영업이익과 비교해서 큰 괴리가 없는지 살펴봐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인데 기타수익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한 것이라면 PER로 인한 판단은 왜곡될 수 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인데 기타비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하고 PER가 큰 값으로 계산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펀더멘털 척도로 볼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세와 이익률 등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추가로 산업 환경과 기업의 여러 질적 정보를 조합해서 성장성을 판단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PER 같은 지표는 투자를 위한 보조지표로만 활용하고 회사 전체를 보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공부 방향이 될 것이다.

CEO 칼럼

최 소 현
퍼셉션 대표



디자인이나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주목하는 이슈가 있으니 다름 아닌 글로벌컬러전문연구소이자 기업인 팬톤(Pantone)에서 선정해 매해 연말에 이듬해의 주인공을 공표하는 ‘올해의 팬톤 컬러’다. 컬러의 선정은 전 세계의 거시환경과 패션·인테리어를 포함하는 디자인 전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까지 고려해 과거로부터의 데이터와 현재의 모습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진행된다. 이는 2000년 시작되어 디자인과 마케팅 및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기획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며 관련분야를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사가 되었다.

“인간이 획득한 지식의 84%는 눈을 매체로 한 것이다”(R. F. 윌슨)라는 메시지는 시각적 정보인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과 함께 ‘시각정보를 구성하는 형태와 컬러 중 인간은 컬러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컬러는 형태에 비해 감성·정서적 소구력이 더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광고

를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핵심적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컬러의 연구와 실험은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이나 인쇄 구현에 제약이 많았던 시대를 지나 여러 매체에 점점 더 많은 색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과 도시, 국가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소로 각자의 고유한 컬러를 선정하고 각인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저마다의 컬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니 반대급부로 흑과 백을 선호하기도 하고, 하나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변화 가능한 컬러시스템으로 개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컬러의 중요성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입히며 정적인 맥락에 생동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인공이 아니라 작은 포인트로서도 충분히 의미 있다.

다시 ‘올해의 팬톤컬러’로 돌아와보자. 2020년에는 차분함과 신뢰를 느끼게 하는

2021년, 당신의 색은 무엇인가요?



올해의 팬톤컬러로 선정된 얼티밋그레이(오른쪽)와 일루미네이팅.

클래식블루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보편타당한 가치와 쉽게 변하지 않는 본질,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2021년의 컬러는 현재 우리의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인내와 긍정’의 의미를 담은 얼티밋그레이(Ultimate Gray)와 일루미네이팅(Illuminating)이 그 주인공이다. 오랜 풍화를 견뎌낸 해변의 자갈처럼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회색과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밝은 노란빛 두 가지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얼티밋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루미네이팅에서

는 ‘한 줄기 빛’이 연상된다.

예년 같았으면 올해의 컬러를 일에 어떻게 적용해볼까 생각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계속되는 불안 속에 어디에 두 발을 단단히 붙일지 어떤 희망의 끈을 발견해야 할지 몰라 주춤하고 멈칫하는 때에 두 컬러를 보면서 여러 가능성을 상상해본다. 어질러진 2020년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새해 새날을 맞이하며 각오를 다짐하는 시기에 아주 작고 소소한 마음의 부적으로 ‘컬러’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누군가 정해진 색이 아니라 각자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 ‘비타민’이든 ‘안정제’든 자기 주문을 읊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쯤 만들어놓는 것은 마치 탄생석이나 별자리의 운을 괜히 믿어보는 것처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작은 힘이 될 수 있겠다.

흑과 백도 컬러인가, 각기 다른 컬러의 속성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감각이 원하는 무엇이든 좋다. 우리는 아주 작은 기운이라도 보태야 하는 시기를 살아내고 있으므로.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를 폐기 명언

“자유는 용기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프랑스의 시인 겸 사상가. 희곡 ‘잔 다르크’에서 그녀를 민중과 사회주의의 영웅으로 묘사하였다.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휴머니즘의 전통을 옹호한 그는 ‘샤르트르 성 모에게 보스 지방을 바치는 시’라는 그리스도교 시의 결작을 남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73~1914.

☆ 고사성어 / 예미도중(曳尾塗中)

진흙탕에 꼬리를 끌며 살아가도 죽은 뒤의 호강보다 좋다는 말. 부귀하지만 속박받는 삶보다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이 좋다는 뜻이다. 원전은 장자(莊子) 추수편. 전국 시대의 사상이 장자를 초빙하려고 온 임금의 사자에게 그가 거절하며 한 말. “초나라에는 신귀라는 3천 년 묵은 거북이 등딱지가 묘당 안에 있다지요. 듣건대 왕은 그것을 비단 천으로 싸서 호화로운 상자 안에 소중히 받들어 모신다더군요. 그런데 그 거북이 죽어서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뼈가 되기를 바라겠소? 아니면 그보다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바라겠소[寧其生而曳尾塗中乎?]”

☆ 시사상식/시코노믹스(Chiconomics) Chic(세련된)와 Economics의 합성어. 교통비나 식비 등을 조목조목 따져 한정된 예산에 맞춰 각 항목에 대해 쓸 돈을 조절하며 알뜰하게 돈을 쓰는 생활습관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솔직하다 한자어 솔직(率直)에서 왔다. 솔(率)은 ‘거느리다’ ‘소탈하다’의 뜻일 때는 ‘솔’로, ‘비율’의 뜻일 때는 ‘율’로 읽는다.

☆ 유머 / 무서운 동심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소 경매시장에 갔다. 사람들이 소의 몸을 두루 만지는 것을 본 아들에게 “소를 사려면 저렇게 만져봐야 한다!”라고 일러줬다. 며칠 지나 아들이 집에 뛰어 들어와 아버지에게 큰일 났다고 하자 무슨 일이라고 아버지가 물었다. 아들 대답. “옆집 형이 누나를 사려고 해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 하 니 자본시장부/honey@



물 만난 증시, 공매도는 어쩔 겁니까

보인다.

주식 시장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만큼 개미들의 눈은 올해 여러 변수 중 첫 타자인 공매도에 쏠릴 수밖에 없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얻는데 공매도 재개 후 증시가 조정 받았던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3월 전후로

주식 시장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금융위 내부에선 예정대로 3월 재개 시 필요한 제도 개선안들을 준비해나가는 모습이다. 당국은 현재 한국증권공용과 증권사의 시스템을 연결해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대주 거래를 할

소통만도 못한 백신 안 되려면

전 인류가 애타게 기다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나왔다. 기존 바이러스 백신이 짧게는 1년, 길면 수년 걸리던 것에 비하면 코로나19 백신은 그야말로 초고속 출시인 셈이다.

그저서일까. 예상치 못했던 북병이 등장했다. 바로 ‘불신’이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말까지 20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1200만 회분이나 풀렸어도 정작 접종은 280만 회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EU 최강국인 독일은 2일까지 24만 명 가까이 백신을 맞았았는데, 프랑스에선 1일까지 접종자가 1000명도 안 됐다.

많은 사람이 빨리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도 조기에 가능하네, 접종이 저조하다 보니 당국은 초조하기만 하다. 이런 배경에는 느려 터진 행정 절차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의도에서 개발과 심사가 무리하게 빨리 진행된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불신이 만연하다.

화이지는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4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 95%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홍보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에는 92쪽에 걸쳐 화이자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공개돼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가 95%라는 건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에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과학적인 정보를 이처럼 투명하게 공개했어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불안과 불신의 근원을 더 파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와 음모론 때문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각종 전염병 백신 개발에 헌신해온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일 것이다.

백신 출시가 가시화한 건 작년 10월경부터였는데, 인터넷에서는 그 5개월 전부터 기괴한 소문이 파다했다. 게이츠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는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는데, 이 백신을 맞으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역시 이 마이크로 칩을 심기 위한 음모의 일부라는 게 괴담의 요지다.

사실 확인에 나선 영국 BBC는 작년 3월 게이츠의 인터뷰가 괴담의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게이츠는 “누가 회복되고,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보여주는 데 사용될 디지털 인증서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마이크로 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소통 백신’이 코로나 퇴치에 잘 듣는다는 허무맹랑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됐다.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아메다바드미러라는 매체는 소의 젖과 버터, 배설물에서 유래한 약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소는 힌두교에서 신성시되는 동물로, 일부 힌두교 단체들은 소의 오줌을 마시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이론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고, 아메다바드미러 기사에도 소통을 백신 용도로 실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괴담들이 세계 최악의 코로나19 감염국에서 퍼졌다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더 퍼지면 집단 면역은커녕 경제 회생도 물 건너가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백신 효능이야 이미 상용을 승인한 나라에서 입증했다 치고,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가 백신 관련 계획을 내놓는 족족 부정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내내 쌓인 불신이 결정적 순간에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아무리 거금을 들이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백신을 들여온들, 국민이 거부하면 백신은 소용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무조건 “믿어라”라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보다 매 단계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보다 더 황당한 백신이 등장할 수도 있다.

sue6870@

사설

코스피 장중 3000 돌파, 거품 우려도 커진다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가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었다. 코스피는 이날 개장 초 3027.16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가,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전날(2990.57)보다 22.36p 내린 2968.21에 마감했다. 2007년 7월 25일 2000을 넘은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3000 고지를 밟은 것이다.

코스피는 작년 한 해 동안 30% 이상 올랐고,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시중 유동성이 주식에 몰려 시장을 달궜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작년 말과 연초에 개인들은 매일 1조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물량을 쏟아냈지만 개인들이 이를 받아내고 있다.

경기가 계속 가라앉는 가운데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건 그나마 반갑고 고무적이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됐고, 초저금리 추세로 증시 주변의 돈이 넘쳐난다. 투자자들의 대기자금인 증권사에탁금이 68조 원을 넘어, 1년 전의 2배 이상이다. 백신 공급으로 코로나19 통제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세금과 대출 등의 전방위 규제가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키워 증시에 돈을 몰리게 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정보기술)와 배터리, 바이오 등 상승장을 주도하는 주식의 미래 성장성도 높다.

그러나 최근 증시가 과열을 빚고

거품이 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의 주식 매수가 빗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신용융자잔고)이 20조 원에 육박한다.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세태를 반영한다.

경기는 최악이다. 기업실적과 경기가 떠받치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불안한 유동성 장세다. 거품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흥남기 경제부총리는 “실물과 금융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부채가 많아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올해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이 과잉 유동성이 만드는 증시 과열은 거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주가수익비율(PER), 수출대비 주가 등의 지표도 과열 신호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올해 국내 기업들의 신용 경색이 가시화하면서 증시 활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지금 주식시장의 주도 세력인 개인들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 비해 늘 정보가 달리고 위험회피 수단이 부족하다. 글로벌 경제 변수에 따른 외국인의 움직임이 특히 큰 변수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위험의 증대, 이로 인한 금융 혼란의 대비책이 절실하다.

노트북을 열며

구성현

자본시장부 차장



‘코스피 지수 3000’

국내 증시에서는 꿈의 지수로 불린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이 지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을까.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한 증권사를 방문해 “(코스피 지수가) 내년엔 300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마 임기 5년 중에 제대로 되면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5년 뒤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5년 내에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아쉽게도 이들 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코스피 지수 3000을 보지 못했다.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폭락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다. 여기에는 그동안 증시의 변방 취급을 받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일명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입과 함께 막대한 유동성의 힘이 더해

지며 증시를 끌어 올렸다.

기존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세를 보이면 개인투자자들이 덩달아 이에 합류하며 지수 하락을 부채질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내면서 오히려 지수를 끌어 올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 당국도 지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주주 요건도 완화해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왔다.

투자자들에게는 이처럼 어렵게 만들어진 꿈의 지수 3000포인트가 6일 오전 개장과 함께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아쉽게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종가 기준 3000포인트는 후일을 기약하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 증시가 코스피 3000시대를 준비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제발 정부와 정치권은 가만 있어 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 이해도가 낮은 정책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 당장 3월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얼마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

다. 지난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부에 시장이 찬물을 끼얹어선 곤란하다.

업계는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 국내 증시의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하루 평균 주식 회전율이 3~5%에 달한다. 하루에 전체 주식의 3~5%가 손바뀜이 된다는 뜻인데 이는 한 달 정도면 상장 주식 전체의 주인이 바뀌는 속도다. 소위 ‘단타’가 늘었다는 뜻이다. 단타를 치는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 건전할 가능성은 낮다.

투자자들도 투자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듯 모를 데마주에 투자하면서 자신만은 일확천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 뜨거운 가슴보다는 냉철한 머리가 필요한 것이 증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렵게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지만 단순 숫자보다는 증시 활황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제몫을 다하게 도와줘야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증시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정부와 투자자도 웃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carlove@

한 컷



오늘도 방역 최전선에서

전국에 찾아온 북극 한파만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0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411명이다.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은 건 이날이 처음이다. 영하권의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은 묵묵히 오늘도 검사에 여념이 없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에너지의 가능성을 넓히는
변화의 시작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GS칼텍스**가
당신의 삶에 더 큰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플러스'를 시작합니다



에너지에 공간가치를 더하다

고객/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복합개발



에너지에 디지털을 더하다



에너지에 Mobility & Life를 더하다



에너지에 혜택을 더하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에너지플러스 신용카드